

아동노동에 눈감은 MB의 자원외교

- 우즈벡 목화농장 아동노동 실태와 한국기업의 책임-

사회자: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 1부: 보고

- White Gold 영상 상영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제작)

- 우즈벡 인권상황 및 우즈벡 목화 산업과 한국기업의 연관성에 대한 소개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 우즈벡 목화농장에서의 아동강제노동에 대한 실태 보고

(Matthew Fischer-Daly, Cotton Campaign)

● 2부: 대응

- 우즈벡 목화 산업에서의 아동강제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Sean Rudolph, 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

- 조폐공사의 우즈벡 진출과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문제

(박원석 의원, 진보정의당)

● 3부: 계획

- 우즈벡 아동강제노동 근절과 한국기업에 대한 인권 책임을 묻기 위한 향후 계획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여정, 세이브더칠드런)

일시: 2012년 12월 13일 (목) 오후 2시-6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신관 4층 간담회실

주최: 시민정치포럼/ 진보정의당 박원석의원/ 국제민주연대/ 공익법센터 어필

목차

목화밭의 아이들을 목격하기까지

우즈벡 정부, 한국 기업,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7

우즈베키스탄에서의 2012 목화 추수에 관한 보고

Matthew Fischer-Daly (Cotton Campaign) 19

Observations of the 2012 Cotton Harvest in Uzbekistan

Matthew Fischer-Daly (Cotton Campaign) 29

우즈벡 목화 농장에서의 강제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Sean Rudolph (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 ... 39

The Actions of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gards to Forced Labor in Uzbek Cotton Fields

Sean Rudolph (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 ... 45

참고자료: Responsible Sourcing Network Cotton Pledge (영문) 49

Responsible Sourcing Network Cotton Pledge (국문) 53

조폐공사의 우즈벡 진출(GKD)의 문제점과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문제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61

참고자료 1: [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조폐공사 우즈벡 투자,

비윤리·직무유기의 막장드라마 75

참고자료 2: [2012 국정감사] 발제자료: 조폐공사 우즈벡 투자,

비윤리·직무유기의 막장드라마 79

목화밭의 아이들을 목격하기까지

우즈베크 정부, 한국 기업,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목화밭의 아이들을 목격하기까지

우즈벡 정부, 한국 기업,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1.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김태희가 밭을 메고, 한가인이 소를 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다는 것으로만 유명했다. 또한 가끔씩 보도되는 자원외교의 성과로 우즈벡의 가스전 개발 사업 등이 보도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2011년 9월 열린 한국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심의에서 우즈벡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이들이 매 가을 마다 목화 수확에 동원 되어 학교도 못가고 강제노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기업은 이렇게 아동강제노동으로 수확한 목화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경우가 많다. 우즈벡이 다른 제도는 완벽한데 목화 농장에서의 아동강제노동만 유독 문제가 되는 것일까? 수확기마다 아이들이 학교 대신 목화 농장으로 동원되어 목화 수확에 동원되는 그림이 나타나기까지, 마치 맞춰지지 않은 퍼즐의 조각들과 같이 흩어져 있는 사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비밀경찰이 데리고 갔답니다

우즈벡에 대한 우리(적어도 우리 사무실)의 이해의 지경을 직접적으로 넓혀준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우즈벡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 사건이다. 사무실에서 난민신청을 대리하고 있는 분이 난민 인정불허 통지를 받자마자 3시간 만에 강제송환을 당했다는 것이다. 난민인정불허처분에 대해서는 14일 내로 이의제기가 가능했지만 그런 기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난민신청자는 이미 강제송환을 당할 뻔 한 경험이 있던 사람으로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저항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진 상태로 화성보호소에 구금이 되어 있었다. 이 사람을 왜 이렇게 급하게 강제송환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 나중에 이 사람을 태워간 우즈벡 항공에 알아본 결과 우즈벡에서 비밀경찰 2명이 와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고, 이 사람은 그 뒤로 우즈벡에서 현재까지 실종된 상태이다.¹

사실 난민신청을 대리할 때부터 좀 놀랐었는데, 무슬림인 신청자가 난민신청사유가 종교 때문

¹ 허은선, "한국 정부 추방한 우즈벡남성, 한달 넘게 행방불명", 시사인242호, 2012.5.8.,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72>>

에 박해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즈베크는 무슬림 국가인데 무슬림이 탄압을 받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었었는데, 국가정황정보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우즈베크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2. 우즈베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즈베크는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22년간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장기집권 중이다.² 22년간의 장기집권이 가능하기 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상상하기에 어렵지 않다.

가. 종교의 자유 탄압

우즈베크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이미 국제사회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즈베크 난민신청자를 조력하면서부터 알게 되었다. 국가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무슬림들이나 등록되지 않은 종교 기구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불법 체포, 고문, 구금 등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평범하게 종교생활을 하는 신자들에게도 “종교적 극단주의자”라는 명목으로 2011년에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기소되었다.

“종교적 극단주의자”라는 죄목으로 구금이 된 자들은 감옥에서 고문을 당한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는데, 동료 수감자들 앞에 벌거벗겨 지고, 맞고, 성추행까지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기독교 및 기타 소수 종교의 신자들에게는 불법 종교 교사 등의 행정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 마약 소지 등, 다른 범죄를 덮어 씌워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감옥 안에서 폭력 및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³

나. 안디잔 학살

안디잔 학살은 언뜻 1980년도 광주를 생각나게 만든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이상할

² 카리모프 대통령은 2007년, 헌법에 명시된 3기연임 금지조항을 무시하고 18년의 임기 후, 7년 임기의 대권에 당선되었다. “우즈베크 카리모프 '독재는 계속된다'”, 중앙일보, 2007.12.25.,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989882&cloc=>

³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12: Uzbekistan, <<http://www.hrw.org/world-report-2012/world-report-2012-uzbekistan>>

⁴ 시인 정한용은 두 사건을 기리며 “광주에서 안디잔까지” 라는 시를 발표하였다. <http://www.poemcafe.com/zboard/zboard.php?id=scrap&page=8&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name&desc=desc&no=1050&PHPSESSID=2b6066fd7b4ce037efd2d33a65b53cbd>에서 읽을 수 있다.

정도로 한국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⁵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우즈베크의 동부도시 안디잔은 소액금융과 구호활동을 통해 이슬람 조직이 지역 주민들의 신망을 얻고 있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우즈베크 정부는 무능한 정부보다 이슬람 세력이 더 커질 것을 염려하였는지, 이슬람 조직들에 대해서 탄압을 가하였다. 2004년 6월, 우즈베크 당국은 무슬림 근본주의자라는 이유로 안디잔 지역 주민 23명을 구금했는데, 이에 주민들은 지역 사업가일 뿐이라고 이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지역 법원의 근처에서 4개월 넘게 평화로운 시위를 하고 있었다. 2005년 5월 13일, 무장세력들이 이들이 구금된 곳을 습격하여 23명의 피구금자들을 석방시켰고, 불만이 극도에 다다른 지역 주민들은 도심의 광장에 모여 당국의 부패와 반인권적인 관행,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평화롭게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즈베크 당국은 이들을 향해 탱크와 헬리콥터까지 동원하여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고,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 당했다. 우즈베크 당국은 사망자가 187명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인권단체 및 국제 언론에 따르면 1,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안디잔 학살 이후 거리에 즐비한 희생자들 (출처:AFP)

⁵ 이 사건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는 약 2주 뒤, 한겨레에 보도된 것과 (“안디잔의 5월”, 한겨레, 2005.5.30.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8013.html>>), 사건으로부터 4년 뒤, 경향신문에 보도된 것이 거의 유일하다. (구정은, “[어제의 오늘]2005년 우즈베크 ‘안디잔 학살’”, 경향신문, 2009.5.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121805315&code=100100>>)

⁶ 위 경향신문 보도 및 BBC 기사 (“How the Andijan killings unfolded”, BBC News, 17 May 2005 <<http://news.bbc.co.uk/2/hi/4550845.stm>>) 참조.

우즈벡 정부는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어떠한 공식적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조사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어 사건의 진말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사건을 목격한 후, 다른 나라로 피해간 난민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박해하고 있으며,⁷ 안디잔 사건에 대하여 증언을 하려는 자들에게 모욕과 실직 등 다양한 형식으로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다. 인권 활동 및 독립 언론에 대한 탄압

이렇게 열악한 우즈벡의 인권 상황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즈벡 정부가 인권활동가와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는 해외 인권 활동가 및 언론들의 접근을 막고 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고문 특별보고관 등을 포함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한번도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 더러 우즈베키스탄의 인권 상황을 보도한 언론인과 인권활동가들을 쫓아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1년에는 Human Rights Watch가 강제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문을 닫고 활동가가 추방이 되었으며, 2012년 3월에는 영국의 BBC와 러시아의 Novaya Gazeta의 기자들(Natalia Antelava, Viktoriya Ivleva)이 추방을 당했다.

현재 수많은 우즈베키스탄 인권 활동가들과 언론인들이 정부를 비판한 것 때문에 구금되어 있다. 1999년에 구금된 Erk의 리포터인 Yusuf Ruzimuradov은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현재 전 세계에서 최장기간 구금된 언론인이다. Erk의 편집장이었던 Muhammad Bekjanov 역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13년 동안 구금이 된 후 2012년 1월 풀려나기로 되어 있었으나 다시 구금 시설에서의 규율 위반이라는 이유로 5년 형을 더 선고 받았다. Human Rights Society of Uzbekistan라는 단체에서 농부들과 장애인들의 사회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했던 Alisher Karamatov라는 활동가는 6년 동안 구금되었다가 2012년 4월에야 풀려났다.⁸

라. 고문 및 형사사법제도

우즈벡에서 고문이 체계적이고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보고서 및 보편적정례검토 보고서에도 이 같은 사실이 잘 드러나 있다. 2011년 12월에 발표된 Human Rights Watch의 “목격할 사람조차 남아있지 않다”라는 보고서는

⁷ Human Rights Watch의 보고에 의하면 우즈벡 정부의 귀국해도 안전하다는 보장 하에 우즈벡으로 귀국을 한 난민이 2010년 4월 30일, 반헌법적 활동 및 불법월경으로 10년 2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⁸ Human Rights Watch, Uzbekistan: Activist Free but Crackdown Widening, 13 April 2012, <<http://www.hrw.org/news/2012/04/13/uzbekistan-activist-free-crackdown-widening>> (공익법센터 어필, “[우즈벡]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 2012.4.14., <<http://www.apil.or.kr/1080>>에서 재인용).

이러한 실상을 잘 드러내 주는데, 고문의 방법으로 끓는 물을 붓거나, 손목과 발목에 줄을 묶어 매달아 놓거나, 강간이나 성추행을 당하도록 한다거나, 가스 마스크로 질식시키는 등의 방법 등이 사용된다고 한다.

2008년 1월,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몇 년 간에 걸친 국제적인 압력 끝에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인신보호영장제도, 즉 구속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2009년 1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미란다 원칙 등 공판 전 구금된 사람들의 형사절차와 관련된 권리들을 확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인신보호법의 채택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 변화된 점은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악명 높은 인권 침해는 늘어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 법률개정을 홍보수단으로 사용했을 뿐, 고문을 막을 의지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⁹

마. 강제불임수술

2007년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보고서에서 드러난 사실 중 매우 충격적인 것이 있는데, 우즈베크에서 강제불임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05년도에 Gulbakhor Turaeva라는 병리학자가 수많은 젊은 여자들의 건강한 자궁들이 적출되어서 오는 것을 발견하고, 200여명의 여자들이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당국에 해명을 요구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병리학자는 해고가 되고 2007년에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

2007년 관련 보고서가 나온 뒤 우즈베키스탄의 강제불임수술 횟수는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우즈베크 정부가 인구수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사들에게 불임수술 시술 할당량을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¹⁰

3. 아동강제노동의 실태

아이러니하게도 우즈베크는 1991년 구소련연방에서 독립을 했지만, 구소련연방 당시에 도입된 목화의 할당량 부과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가. 목화 - 우즈베크의 하얀 황금(white gold)

⁹ Human Rights Watch, “No One Left to Witness”, December 2011, available at <http://www.hrw.org/sites/default/files/reports/uzbekistan1211webwcover.pdf> (공익법센터 어필, “우즈베키스탄의 HRW 인권보고서”, 2012.4.2., <http://www.apil.or.kr/1071>) 에서 재인용).

¹⁰ Natalia Antelava, “Uzbekistan's policy of secretly sterilising women”, BBC World Service, 12 April 2012 <http://www.bbc.co.uk/news/magazine-17612550> (공익법센터 어필, “[우즈베크]강제불임수술”, 2012.4.14., <http://www.apil.or.kr/1079>) 에서 재인용).

2011년, 우즈베크는 세계에서 6번째로 목화를 많이 생산하였고 5번째로 많은 목화를 수출하였다. 목화 수출은 2010-2011 국가수출량의 11.3%를 차지하며, 우즈베크의 주요 현금작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따라서 목화는 중앙정부의 철저한 통제 하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즈베크 목화는 정부가 통제하는 농장에서 생산이 되는데, 농민들은 농장에 목화를 심고, 추수한 목화를 자유시장에서 시장가격으로 거래하는 대신, 농장에 심고, 추수한 목화를 각 지방정부의 지역의 조면기 (면화에서 솜과 씨를 분리하는 기계)까지 운반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가에서는 농부들이 재배한 목화, 원면(raw cotton)을 국가가 소유한 조면협회(state-owned cotton ginning association)를 통해 정당한 원가의 불과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가격으로 모두 사들이고, 가공 처리된 린트(processed lint, 목화 씨를 둘러싼 부분)의 75%는 정부가 소유한 3대 무역회사에 의해 수출을 하여 곧바로 정부의 이윤으로 돌아오게 된다.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에 목화를 파는 것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밀수출로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다.

나. 아동노동의 실태

중앙 정부는 각 지방 정부와 농가들에 목화 수확 할당량을 배정하고, 각 지방정부가 할당량을 책임지게 되는데, 할당량을 채우기 위하여 학교에서 아동들을 목화밭으로 보내도록 지시가 내려지고, 아동들은 주어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하여 강제 노동에 동원이 된다. 따라서 목화 수확기인 9월부터 11월까지의 학교는 폐교되고, 국가 공권력의 감시 하에 수확이 이루어진다. 우즈베크 전역에 걸쳐서 약 150~200만 명의 아동, 대부분 11세 이상이지만 몇몇은 불과 7세에 지나지도 않은 나이의 아동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된다.¹¹

여기서 우즈베크 아동노동의 특유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 아동노동은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우즈베크의 아동노동이 독특한 점은 국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동강제노동을 조직하여 얻게 되는 모든 이익이 국가 - 22년간 장기 집권하고 있는 카리모프 대통령과 그 일가 - 에게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즉, 우즈베크 목화농장에서의 국가 주도하의 아동강제노동은 심각하고, 조직적이고, 지속적 (serious, systematic, and continuous)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확기에는 학교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것은 학생과 교사들 모두 수확에 동원이 되기 때문이다. 목화 농장 근처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귀가해서 쉴 수 있지만, 먼 지역에서 버스에 실려 동원된 아이들은 근처의 기숙사나 농가 혹은 학교 교실에서 잠을 자게 된다. 생활 조건은 매우 열악 하여 관개수를 마시거나 물이 부족하여 샤워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음식의 질이 매우 낮다. 구소련 시절에는 오히려 따뜻한 도시락이라도 지급이 되었었지만 현재는 아동들은 돈을 주고 음식을 사먹어야 하는 실정이다.

¹¹ “From the Field: Travels of Uzbek Cotton Through the Value Chain”, Responsible Sourcing Network, July 2012, available at <<http://www.sourcingnetwork.org/storage/FromTheFieldReport.pdf>> (공익법센터 어필, “들판에서: 가치 사슬(value chain)을 통한 우즈베키스탄 면화의 여정”, 2012.8.20., <<http://www.apil.or.kr/1159>> 에서 재인용).

매우 열악한 근로 및 생활 환경 하에 아이들은 쉽게 지치고, 건강상태가 악화되기 쉽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 Smarkand 지역에서 2년 간 8명의 아이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질병과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열악한 근로 및 생활 환경 때문에 내장 감염, 호흡기 질환, 뇌막염 및 간염과 같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고된 일이지만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은 목화밭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질이 안 좋은 목화를 판 아이들은 야단을 맞고, 체벌을 당하고, 감금이 되기까지 하거나 학교 성적이 떨어질 것이라는 협박을 듣기도 한다. "4kg을 수확하지 못하면 맞을 것"이라고 협박당한 것이 증언으로 남아있기도 하다.

수확 시기 및 나이에 따라 아이들은 10에서 50kg 사이의 목화를 매일 수확해야 한다. 이들에게 지불되는 보수는 목화의 질에 따라 평가절하되게 되며, 어떤 경우에는 식비, 교통비, 도구비 등의 명목으로 공제가 되어 한 푼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¹²

4. 한국기업의 진출 현황

그러나 한국과 우즈베크는 여러 방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 수출입현황

• 연도별 수출입규모

구분 (백만 달러)	2008	2009	2010	주요 품목
수 출	1,123	1,150	1,439	자동차 및 부품, 합성수지, 편직물
수 입	263	47	22	천연섬유사, 면직물, 농산물 및 기호식품

• 주요 수출입품목

순위	품 목 명	수 출 (백만 달러)		순위	품 목 명	수 입 (백만 달러)	
		2009	2010			2009	2010
1	자 동 차 부 품	578	724	1	천 연 섬 유 사	10	11
2	원 동 기 및 펌 프	127	166	2	면 직 물	4	4
3	자 동 차	81	101	3	기 타 농 산 물	2	3

(자료 출처: 수출입은행, 우즈베키스탄 국가개황)

¹²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White Gold, The True Cost of Cotton: Uzbekistan, Cotton, and the Crushing of a Nation.", London, UK, 2005, p.21., available at <http://ejfoundation.org/cotton/white-gold>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액은 수입액의 65.4배에 달하며,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천연 섬유사와 면직물 등이 주요 수입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우즈베크의 목화관련 한국기업: 대우인터네셔널

대우인터네셔널은 대우 텍스타일 페르가나, 부하라 2개의 현지 법인 및 한국조폐공사와 합작 회사로 투자한 글로벌콤스코대우를 통하여 목화를 기초로 한 섬유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우텍스타일은 우즈베키스탄 동부에 있는 페르가나 주에 방적 공장 2곳을 운영 중이며, 과거 '갑을 공장'이었던 '갑을 페르가나' 및 우즈베키스탄 최대 규모의 '부하라 텍스타일'의 방적 부분을 2008년도에 인수하여, 현재는 대우 텍스타일 페르가나와 대우 텍스타일 부하라 법인 2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 연간 24만추 이상의 면사를 생산하고 있어, 우즈베크 내에서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량이 유럽 및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¹³

대우인터네셔널은 우즈베크의 집중 산업 분야인 섬유 산업에서 입지를 굳고히 한 후, 자원개발 및 자동차부품 등의 신규 산업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4월, 우즈베크 에너지 공기업인 UNG(우즈베크네프테가스)와 공동으로 아랄해 인근의 35,36광구에 대한 탐사권을 따내고 석유가스 탐사를 시작한 것이 보도되었으며, 광업진흥공사와 공동으로 우즈베크 우라늄, 금광 개발사업에 진출할 뿐 아니라, 국내 차량부품 중소기업과 손잡고 현지에서 자동차부품 공장을 설립하여 GM우즈베크에 백미러, 와이퍼 등 부품을 공급할 예정이라는 것이 보도되었다.¹⁴

다. 우즈베크의 목화관련 한국기업: 조폐공사의 진출

한국조폐공사는 대우인터네셔널과 우즈베크 코고지사를 인수하여 2010년 9월 13일에 합작으로 글로벌콤스코대우(Global Komsco Daewoo)를 설립하게 된다. 한국조폐공사는 지폐, 수표, 상품권 등 은행권 보안용지 및 정밀화학 제품, 신소재 섬유의 주원료인 면펄프의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목표로 우즈베크 진출을 꾀한 것이다. 총설립비용 1,100만불 중 715만불을 투자하여 지분의 65%를 확보하였고 대우인터네셔널이 나머지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장의 운영은 대우인터네셔널이 맡고 있다. 국내의 면펄프 수요는 국내 연간 사용량 1만7천톤이지만, 당초 계획은 연간 2만톤의 면펄프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대우인터네셔널을 통해 조폐공사를 비롯한 국내외업체에 판매를 할 예정에 있었다.¹⁵

¹³ 김미희, “대우인터, 우즈베크서 '코튼 로드'연다”, 2008.5.25.,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52516881〉](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52516881)

¹⁴ 상동.

¹⁵ 조폐공-대우인터, “우즈베크 면펄프 공장 운영”, 2010.8.29.,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0/08/27/0604000000AKR20100827188500003.HTML〉](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0/08/27/0604000000AKR20100827188500003.HTML)

그러나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글로벌콤포스코대우의 운영실적은 현저히 낮아, 2011년에는 총 572톤의 면펄프를 판매하는 데에 그쳤는데 그 중 429톤을 조폐공사에 판매하였고, 2012년 6월까지도 총 1,276톤 만을 판매하였으며 그 중 1,076톤을 조폐공사에 판매하는 수준으로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¹⁶

라. 기타 분야

(1) 수르길 가스전 투자

수르길 가스전은 우즈베키스탄 국영 석유가스공사(UNG)와 한국 컨소시엄이 각각 50%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고, 한국 컨소시엄의 출자는 호남석유화학(3억5000만 달러, 24.5%), 가스공사(3억2000만 달러, 22.5%), STX에너지(3000만 달러, 3%) 등이다. 그러나 2009년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된 바로는 천연가스 추정 매장량 자체가 일정하지 않게 보고되고 있는데, 2009년 국제 석유가스 전문 평가 회사는 매장량을 한국가스공사가 밝힌 양의 1/10 수준인 2400만 톤이라고 밝혔으나,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의뢰로 같은 해 이뤄진 조사에서는 4750만 톤으로, 2010~2011년 재조사에서는 7080만 톤으로 나왔다.

우즈베키스탄은 '부족분이 발생하면 다른 지역의 가스전으로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한국은 이 약속을 믿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섰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3월 10억 달러 여신 승인을, 무역보험공사가 8억 달러를 승인한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신용등급을 10단계 중 7단계인 D1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전체 수르길 가스전 사업비 가운데 한국이 출자 7억 달러, 차입금 18억 달러 등 25억 달러를 마련한 셈이다. 수르길 전체 사업비는 39억 달러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50%씩 출자한 출자금 14억 달러를 빼면 차입금이 25억 달러이고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끌어온 차입금은 아시아개발은행(ADB) 4억 달러, 중국개발은행 2억 달러, 우즈베키스탄개발기금 1억 달러 규모다.¹⁷

(2)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구

대한항공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나보이 공항이 포함된 나보이 FIEZ의 경우 한국은 2009년 수출입은행의 전대여신 1억 달러와 기재부 산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1760만 달러를 제공했다.¹⁸

>

¹⁶ 박원석의원실 정보공개청구 자료.

¹⁷ 광재훈, “한국조폐공사, 우즈베크에서 아동착취로 돈벌이”, 프레시안, 2012.10.1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21015182916>

¹⁸ 상동.

마. 해외개발원조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선정

한국기업들의 투자 외에도 한국정부의 원조자금 또한 활발하게 우즈베크에 유입이 되고 있다. 우즈베크은 한국의 중점 협력대상 국가의 하나로, 21세기 들어 동구 및 CIS 지역 국가들 가운데 지원 순위 1위인 국가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2001년 이래 대 우즈베크 무상원조 규모는 무려 5 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0년에만도 총 948.6만 달러에 달하는 무상 원조를 제공하였다. 2009년에는 1000만 달러 규모의 유상 원조 사업을 단행하였으며,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총 1억 1700만 달러에 달하는 유상 원조를 제공하여 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특히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진행된 농업용수 염분저감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89만 달러 규모의 무상 원조를 제공하여, 우즈베크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장기적 지원 외에 현행 목화 농업도 장려하고 있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⁹

5. misplaced piece

물론 이 사건들이 우즈베크 목화농장에서 아동강제노동이라는 그림을 보여주는 모든 조각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들을 통해 적어도 우즈베크이 김태희가 받을 멘다거나, 자원개발의 기회가 많은 곳이라는 단편적인 조각들 외에 다른 조각들을 통해 우즈베크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 한국 사람, 한국 기업, 한국 시민사회 - 도 이 조각들에 속한다는 것이다. 공급은 수요와 맞닿아 있다. 아동강제노동으로 수확하는 목화는 사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산이 되는 것이다. 아이들이 수확한 목화가 우리 손에 올 때까지 - 수많은 경로를 거쳐 지폐가 되기도 하고, 의류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돈을 쓰고, 옷을 입을 수 있지만, 목화에 서린 아이들의 눈물은 그대로 있다.

우리가 우즈베크 목화농장에서 아동강제노동이라는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한 조각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그림이 사라질 때까지 잘못 놓여져 있는 조각 조각들이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한국 사람, 한국 기업,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¹⁹ <http://www.odakorea.go.kr/index.jsp> - 우즈베크스탄 항목 참조 (강태승, “우즈베크스탄 면화 사업으로 인한 국제적 환경 및 인권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와 한국시민사회의 대응”, 2012.6., p.7 에서 재인용)

우즈베키스탄에서의 2012 목화 추수에 관한 보고:

강제아동노동은 지속되었다.

성인의 강제노동은 강화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압력에 반응한다.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

Matthew Fischer-Daly

Cotton Campaign



우즈베키스탄에서의 2012 목화 추수에 관한 보고:

강제아동노동은 지속되었다.

성인의 강제노동은 강화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압력에 반응한다.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

Matthew Fischer-Daly (Cotton Campaign)

우즈베키스탄의 2012년 목화 추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Cotton Campaign에서 정리한 이 문서는 추수기간 동안 진행된 시민사회의 관찰 결과와 몇 가지 예비 교훈들을 제시한다.

독립적인/자율적인 모니터링의 금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2 목화 추수기간 동안 다시 한 번 ILO의 모니터링 수행을 거부했다. 2009년부터 ILO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아동·성인 목화밭 강제노동을 고발하는, 노동자, 고용주, 그리고 시민사회의 보고서에 대응할 것을 우즈베크 정부에 촉구해왔다. 2010년부터는 ILO 노사정 감독위원회(tripartite supervisory body)가 목화 추수기간 동안 제한 없이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허용할 것을 우즈베크 정부에 촉구해왔다. 2012년에 ILO는 우즈베크 정부에 추수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할 ILO 기술지원팀을 초대함으로써 첫 발을 내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우즈베크 정부는 한결같이 ILO의 접근을 불허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2 목화 추수를 모니터링하고자 시도하는 시민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위협하며, 억압했다. 농장들은 경찰 감시 하에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인권 협회(Human Rights Society of Uzbekistan, HRSU)의 굴산 카라에바(Gulshan Karaeva)는 9월 27일 “명예 훼손”이란 불분명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녀가 지난 몇 년 동안 행했던 것과 같은 목화 추수에 대

한 보고는 불가능해졌다. 독립인권기구(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 of Uzbekistan)의 옥탐 파르다예브(Uktam Paradaev)은 9월 30일에 체포되었다. 10월 20일에는 우즈베키스탄 인권연합(Human Rights Alliance of Uzbekistan, HRAU)의 회원들이 카쉬카다리아(Kashkadarya) 지역에서 목화를 줍는 어린이들의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지역 경찰을 피해 은신해야만 했다. 국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인 Uztelecom은, 우즈베키스탄의 대다수사람들이 인터넷 검열을 우회해 국가가 금지한 www.cottoncampaign.org 같은 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웹 프락시 클라이언트를 차단했다.

목화 부문에서의 아동 및 성인의 강제노동 시스템에 관한 공모 혐의를 받을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제적 기업들은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를 전혀 수행한 바 없다. 경제협력 및 개발기구의 다국적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The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은 독립적인 위험 평가와 민간 사회가 주도하는 모니터링으로 시작되는, 인권현황에 대한 실사를 시행할 책임을 제시한다.

아동강제노동의 지속

아동강제노동은 수확이 시작되기 전, 우즈베키스탄 총리의 성명 발표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 그러나 총리의 성명마저도 단순히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국내법과 ILO 제138호 협약, 제182호 협약의 비준을 반복한 것에 불과했다.²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아동강제노동은 수확 말기에 증가했다; 수확시즌 초기에 문을 열었던 학교는 목화 수확을 끝마치기 위해 아이들을 내보내고 문을 닫았다.

국제법은 17세 이하의 아이들에 대한 강제노동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으로 규정한다.²¹ 우즈베키스탄의 노동법은 근로 가능한 최저 연령을 16세로 규정하고 있다.²² 우즈베키스탄의 헌법

²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997년 ILO 제105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을, 2008년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을, 2009년 138호 제182호 최소연령 협약에 비준하였다.

http://www.ilo.org/dyn/normlex/en/f?p=1000:10011:0::NO::P10011_DISPLAY_BY,P10011_CONVENTION_TYPE_CODE:1,F.

²¹ Article 3 of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Convention No. 182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available at

http://www.ilo.org/dyn/normlex/en/f?p=1000:12100:0::NO::P12100_ILO_CODE:C182.

²²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Labor Trends: Uzbekistan 2006," available at

<http://www.state.gov/j/drl/rls/78396.htm#d>.

은 특별히 강제노동 또는 부채 상환을 위한 노동을 금지한다. 2012년 9월 5일부터 9학년 이상, 16-17세의 큰 아이들은 퇴학 또는 기숙사 퇴출의 위협 아래 국가 전역에 분포한 목화밭으로 보내졌다.²³ 이 연령의 아이들은 막사에 머무르며 매일 강제로 60kg의 목화 할당량을 채워야했다-아이들의 숙소인 막사는 종종 적절한 위생조건과 음식, 음용수가 결핍된 장소였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자행됨을 고발한 보고서들이 많았다. 수확기간 내내 더 어린 아이들 (1-8학년, 7-15세)은 방과 후에 목화를 줍도록 내몰렸고, 몇몇 학교들은 어린 아이들이 목화를 줍도록 일시 휴교하기도 했다.

사마르칸트(Samarkand) 지역의 이쉬티혼(Ishtihon) 구의 교사들은 9월 28일, 그들이 가르치는 11세 이상의 학생들이 목화를 줍기 위해 밖으로 내보내졌다는 사실을 보고해왔다. 9월 29일에는 지작(Jizzak) 지역의 자르다(Zarbdar) 구 제1번 학교의 14-15세 학생들이 교장에 의해 목화밭으로 나갔다. 9월에 들어 타슈켄트(Tashkent)와 카쉬카다리아(Kashkadarya) 지역의 학교들은 13세 이상의 학생들을 목화밭으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9월 20일부터 4-5학년, 10-11세의 어린 아이들은 카쉬카다리아(Kashkadarya) 지역의 목화를 줍도록 강요당했다. 앙그렌(Angren)에서는 보고된 바에 따르면, 보다 연령이 높은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2012 목화 수확기간에 대한 두 가지 옵션이 주어졌다고 한다: 그들의 아이들을 추수현장에 보내지 않기 위해 총 300,000sums (US달러로 약 \$110)를 지불하거나, 리세움/학원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등학교)에 제출한 그들의 서류를 11월 1일까지 철회하거나.

성인 강제노동의 강화

성인에 대한 대규모 강제노동은 9월 3일에 시작되었다. 정부 당국은 각 정부 기관의 인력 중 16-17%가 각 개인당 평균 2주씩 목화밭에서 일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에 고용된 모든 이들-교사, 의사, 간호사, 보건의료계 종사자, 은행 직원, 서열이 매겨지지 않은 군인, 정부 각 부처의 직원, 모든 대학 학생들-은 목화를 추수하기 위해 차출될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각 학교의 교사들 중 60%는 목화 수확에 강제로 동원되었다. 정부 직원들은 그들의 일자리를 잃거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기타 혜택을 빼앗길 위협 아래 목화 추수에 참여하도록 강요 받았다. 지역 기반의 기구인 마할라(mahalla) 위원회 역시 목화 추수에 동원되었다. 이 위원회는 저소득 시민에게 사회 복지 재정을 배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 지원을 담보로 한 위협 아래 목화 추수에 나서게 되었다. 사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종업원을 목화 추수 현장에 보내고 수확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²³ 우즈벡의 교육 제도 및 연령에 관한 정보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Uzbekistan: structure of the education system," *World Data on Education, VII Ed. 2010/2011*, page available at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1/002113/211314e.pdf>.를 참고.

불참에 대한 처벌 위협은 위협을 넘어 실제 집행되고 있다.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목화 수확으로부터의 면제를 요청했던 한 어머니는 그녀의 추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성 보호 지원을 잃게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두 명의 고용주는 (수도 타쉬켄트의 운송 회사의 소유주들인) ‘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약 \$200에 사람들은 목화를 따는 작업에서 면제될 수 있는 ‘권리’를 살 수 있었고, 이는 목화 수확기 시민 착취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는 관행이 되었다.

2012년에는 목화 수확에 대한 급여 미지급이 예년에 비해 더 성행했다. 초기의 이러한 조짐은 성인 목화 수확 노동자에 대한 급여 미납의 만연을 강조해준다. 많은 보고서들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 할당량과의 차이를 메꾸기 위해 오히려 돈을 지불해야 함을 암시했다.

성인에 대한 강제노동은 우즈베키스탄 국내 법률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의해 비준된 ILO 제 105호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 직원들을 향한 강제 노동의 규모는 학교, 병원, 운송, 은행 업무 등 필수 공공 서비스의 이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학교들은 수업을 취소해야 했으며, 반을 합쳐 한 교실에 60명의 학생들을 넣는가 하면, 교사들에게 그들의 전담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가르치게 했다고 (예를 들어, 영어 교사가 수학을 가르친다든지) 보고해왔다. 병원들은 목화 추수에 직원들을 내보내야 했기 때문에,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환자들을 돌려보내야 했다.

무(無) 진전과/답보상태의 우즈베크과,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속적인 부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발표한 바 있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개혁”에 대한 주장은 아동 및 성인의 강제노동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목화밭에 공허하게 울릴 뿐이다.

수확기 내내 정부 소유의 통신사인 UzInform.com은 자랑스럽게 강제노동의 사용을 공표했다. 이 언론기관은 나망간(Namangan)의 교사들이 국가 공휴일인 “교사의 날(Teachers’ Day)”에도 목화 사업을 위해 일한 것에 대해 칭송했고, 가장 많은 목화를 주운 교사들에게 선물로 ‘밭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좋은 품질의 신발’이 지급되었음을 강조했다.²⁴ 10월 8일에 UzInform은 나망간 공학 기술 학교 (Namangan Engineering Technology Institute)의 교수단이 목화 할당량을 초

²⁴ 《Наманганские педагоги на полях и в праздники,》 UzInform, 7 October 2012.

과해서 채운 학생들에게 “선물과 수료증”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²⁵ UzInform은 또한 그 다음 날, 우즈베키스탄 언론인 연합(Union of Journalists of Uzbekistan)이 페르가나 주립 대학(Ferghana State University) 학생들이 주 발전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그에 대해 용기를 내준 것을 치하했으며, 목화 수확에 대한 선물을 나눠줬다고 보도했다.²⁶ 통신사는 나보이(Navoi) 지역²⁷의 건설 노동자들과 나망간(Namangan) 지역²⁸의 금융회사 직원들의 참여를 강조하며, 수확기 내내 이러한 논조의 언론보도를 지속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는 농업 부문에서의 혁신에 진전이 있음을 주장하며, 농장의 권리와 이해관계, 영업활동에 대한 법적 보장 개선을 우선사항으로 담고 있는 문서에 10월 22일 서명했다. 이 칙령은 우즈베키스탄 농장주 협회(Association of Farmers of Uzbekistan)를 폐지하고 우즈베키스탄 농장주 협의회(Council of Farmers of Uzbekistan)로 대체하는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12년 목화 수확이 아동노동에 반대하는 타쉬켄트(Tashkent) 연설로 시작해 아동 및 성인 강제노동의 지속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의 발표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압력을 계속하라: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에 반응한다

2012 목화 수확으로부터 얻은 예비 교훈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압력에 반응하지만 목화 부문에 있어서 아동과 성인의 강제노동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압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목화밭에서의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목화 부문을 개혁하라는 국제적인 압박을 완화하려 시도했지만, 그 성명은 단지 국내 법률과 국제적 기준을 지키겠다는 이전의 발표를 반복한 것에 불과했다. 계속된 아동과 성인 강제노동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완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2 목화 수확기 동안, 강제노동은 모든 12개 주와 1개의 자치공화국,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행정 중심지인 1개의 시에서, 즉, 모든 행정구역에서 보고되었다.²⁹

²⁵ “Студенты помогают хлопкоробам,” UzInform, 8 October 2012.

²⁶ “Поддержали студентов,” UzInform, 9 October 2012

²⁷ “Навоий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омогает хлопкоробам 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 UzInform, 9 October 2012

²⁸ “Наманганские финансисты вышли на хлопковые поля,” UzInform, 10 October 2012

²⁹ Uzbekistan’s administrative areas include: 12 provinces (viloyatlar, singular – viloyat): Andijon Viloyati, Bukhara Region / Buxoro Viloyati, Fergana region / Farg’ona Viloyati, Jizzakh region / Jizzax Viloyati,

우즈베키스탄 목화 추수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성인 강제노동이 사용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2년 수확을 위해서 그 규모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BBC를 포함한 현장 조사 보고서는 2007년부터 농부, 정부 직원, 학생, 그리고 어린 초등학생까지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위한 노동에 동원하기 위해 무력·협박에 의한 강압이 사용되었음을 강조해왔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매년 목화 수출로 추정치가 US달러로 \$10억에 이르는 수입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 소득의 사용처에 대한 완벽한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 UN 기관들은 약속 준수에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할 것을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에는 ILO 노사정감독위원회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ILO 제29호와 제105호 협약 이행 실패에 대해 주의를 환기했다.

2012 목화 추수를 거치는 동안, 정부가 목화 산업을 강제노동에 기반을 둔 산업에서 경제적 유인에 기초한 산업으로 변혁하려는 어떠한 절차도 밟지 않았음이 분명히 밝혀졌다. 2005년부터 국제적 옵서버에 의해 보고된 바와 같이, 아동과 성인의 강제노동은 목화 부문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의 증상이다. 목화 부문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아동과 성인의 강제노동에 대한 수요는 여전할 것이다.

The Cotton Campaign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무제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 강도 높은 노사정감독위원회 파견단을 초청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행정기관들과 기업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까지, 목화 부문에서의 강제노동을 종식시키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설득하는 데에 그들의 영향력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우즈벡 아이들과 성인들이 정부의 후원 아래 계속해서 강제노동에 이용당하는 것을 보장할 뿐이다.

주요 자료 출처:

- Personal interviews with human rights defenders in Uzbekistan by the Cotton Campaign,

Namangan Viloyati, Navoiy Viloyati, Kashkadarya region / Qashqadaryo Viloyati (Qarshi), Samarkand region / Samarqand Viloyati, Syrdarya region / Sirdaryo Viloyati (Guliston), Surkhandarya region / Surxondaryo Viloyati (Termiz), Toshkent Viloyati [Tashkent province], Khorezm region / Xorazm Viloyati (Urganch). 1 autonomous republic* (respublika): Qoraqalpog'iston Respublikasi [Karakalpakstan Republic]* (Nukus). 1 city** (shahar)

Toshkent Shahri [Tashkent City]**

September–October 2012.

- Uzbek–German Forum for Human Rights, *Chronicle of Forced Labour 2012*, <http://uzbekgermanforum.org/category/cotton-chronicle/>.
- BBC, < <http://www.bbc.co.uk/news/> >.
- Central Asia News Service, < <http://en.ca-news.org/news:516252/> >.
- Fergana Information Agency, < <http://enews.fergananews.com/article.php?id=2782> >.
-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 < <http://www.rferl.org/archive/Uzbekistan/latest/671/671.html> >.
- UzNews.net, < <http://www.uznews.net/index.php?lng=en> >.
- UzInform, < <http://www.uzinform.com> >.
- The Washington Times, < <http://www.washingtontimes.com/> >.

2012년 목화 수확기의 언론 레포트 및 기사들:

1. [Chronicle Of Forced Child Labour 2012](#), Uzbek – German Forum for Human Rights, 2012
2. [“The Cotton Campaign: Who Are You Wearing?”](#) Good Men Project, 24 November 2012
3. [“UZBEKISTAN: Cotton ban gains momentum with apparel firms”](#) Just–Style, 9 November 2012
4. [“Uzbekistan to use new technologies to pack cotton–fiber”](#) UzDaily, 6 November 2012
5. [“Human rights activist arrested for seeking meeting with Uzbek prosecutor–general”](#) UzNews, 3 November 2012
6. [“More Than 100 Top Brands Boycott Uzbek Cotton Over Forced Labor”](#) Radio Liberty, 2 November 2012
7. [“Over 100 companies boycotting Uzbek cotton”](#) UzNews, 2 November 2012
8. [“Over 100 top brands boycott Uzbek cotton over forced child labor”](#) CA–News, 2 November 2012
9. [“Geographical Shift in Cotton Mill Use”](#) Press Release, International Cotton Advisory Committee, 1 November 2012
10. [“Uzbekistan: Over 100 Companies Eschew Uzbek Cotton”](#) EurasiaNet, 1 November 2012
11. [“Lyceum students face expulsion for not picking cotton”](#) UzNews, 30 October 2012
12. [“Schoolchildren in cotton fields in Kashkadarya”](#) UzNews, 25 October 2012
13. [“Uzbekistan: Human rights activists discover school children at cotton fields in Kashkadarya region”](#) Fergana, 25 October 2012

14. [“Kyrgyz journalist Alisher Saipov was murdered five years ago”](#) UzNews, 25 October 2012
15. [“Over 20 British companies discuss prospective business projects with Uzbekistan”](#) CA-NEWS, 25 October 2012
16. [“Uzbekistan Farmers Association Abolished”](#) UZ Daily, 24 2012 (Note: Only the headline reported by Uz Daily)
17. [“World Bank: Uzbekistan has the worst business conditions amongst Eastern European and Central Asian countries”](#) Fergana Information Agency, 24 October 2012
18. [“Uzbekistan: delegation of businessmen from Great Britain to go to Tashkent to discuss trade issues”](#) Fergana Information Agency, 24 October 2012
19. [“Kinderarbeit Löning fordert Boykott gegen Usbekistan”](#) (Löning calls for boycott against Uzbekistan), Spiegel, 23 October 2012
20. [“Uzbekistan harvests 3.35mn tons of cotton this season”](#) Fibre 2 Fashion, October 23, 2012
21. [“Cotton producers in Uzbekistan yield over 3.35 mln tons of cotton”](#) CA News, 22 October 2012
22. [“Cotton Campaign reminds US would-be presidents of cotton slavery in Uzbekistan”](#) UzNews, 20 October 2012
23. [“Tashkent holds cotton fair in secrecy”](#) UzNews, 19 October 2012
24. [“Uzbek college students return from cotton fields”](#) UzNews, 19 October 2012
25. [“Cotton Campaign Calls on President Obama and Mr. Romney to Speak Out Against Slavery in Uzbekistan”](#) Fergana News, 19 October 2012
26. [“Uzbekistan inks contracts for export of 670,000 tonnes of cotton fiber”](#) UzDaily, 18 October 2012
27. [“Uzbek authorities open criminal case against opposition leader’s father”](#) UzNews, 18 October 2012
28. [“Rights activist’s 100-year-old grandma notifies president of new picket”](#) UzNews, 18 October 2012
29. [“Uzbekistan plans to increase cotton-fiber processing up to 70% by 2015”](#) UzDaily, 17 October 2012
30. [“Uzbekistan Tightens Grip on Internet Proxies”](#) EurasiaNet.org, 17 October 2012
31. [“Uzbekistan: Doctors and Nurses Forced into Cotton Fields”](#) EurasiaNet.org, 16 October 2012
32. [“Documents Link Uzbekistan’s Karimova To Money-Laundering Suspect”](#)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 16 October 2012
33. [“Doctors and nurses forced to pick cotton”](#), BBC News, 15 October 2012

34. [“Unwilling Cotton Harvesters in Uzbekistan”](#) Institute for War & Peace Reporting, 13 October 2012
35. [“Centennial grandma to picket in support of rights activist in Karshi”](#) UzNews, 13 October 2012
36. [“Uzbekistan toughens Internet censorship”](#) UzNews, 11 October 2012
37. [“Several Arrested’ Over Uzbek Teenager’s Death”](#) Radio Free Europe / Radio Liberty, 10 October 2012
38. [“Uzbek Prosecutor General’s Office ignores children in cotton fields”](#) UzNews, 10 October 2012
39. [“Picket in support of arrested rights defender dispersed in Tashkent”](#) UzNews, 9 October 2012
40. [“Voice Of Dissent Flees Uzbekistan”](#)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 8 October 2012
41. [“Elnur & Ruslan Textile opens new plant on production of children clothes”](#) UzDaily, 8 October 2012
42. [“Tajikistan conference to discuss integration of Central Asia into world trade”](#) CA–News, 08 October 2012
43. [“Uzbekistan: Arrest of human rights defender Gulshan Karaeva”](#) Front Line Defenders, 5 October 2012
44. [“Uzbeks bristle under regime’s Web scrutiny”](#) The Washington Times, 1 October 2012
45. [“Schoolboy’s mother helps teacher return from cotton picking”](#) UzNews, 29 September 2012
46. [“Trade union member dies in cotton field in Tashkent Region”](#) UzNews, 28 September 2012
47. [“Uzbek government breaks promise to end child labor in cotton fields”](#) The Washington Times, 24 September 2012
48. [“Schoolchildren studying while college students still picking cotton”](#) UzNews 21 September 2012
49. [“Police threaten family for student’s failure to pick cotton”](#) UzNews, 21 September 2012
50. [“Uzbekistan involves school students into cotton picking campaign”](#) CA–News, 21 September 2012
51. [“Uzbek schoolchildren sent to cotton fields”](#) UzNews, 19 September 2012
52. [“Tashkent sends emergency doctors to pick cotton”](#) UzNews, 18 September 2012
53. [“Uzbek government tightens Internet censorship”](#) UzNews, 18 September 2012
54. [“Uzdunrobita managers convicted, MTS subsidiary now owned by government”](#) Ferghana News, 18 News 2012
55. [“Karakalpakstan: No work in wasteland”](#) UzNews, 18 September 2012
56. [“Korean company to commission textile production in Uzbekistan”](#) Trend News Agency, 17

September 2012

57. [“Uzbekistan: Bloggers and Ministry of Justice staff picking cotton instead of farmers”](#) Ferghana News 17 September 2012
58. [“Cotton Harvest Derails Uzbek Transport”](#) RFE/RL’s Uzbek Service, 13 September 2012
59. [“We don’t use child labor and no you can’t have a look”](#) CA–News, 13 September 2012
60. [“Businesses forced to sponsor cotton harvesting in Angren”](#) UzNews, 12 September 2012
61. [“Uzbek teachers sent to cotton fields”](#) UzNews, 12 September 2012
62. [“The World Bank has donated \\$ 40 million to Uzbekistan to support agriculture”](#) Baku Today, 12 September 2012
63. “Someone who is cooperating with us needs also to be transparent.”
 - a. Today, the BBC interviewed German Bundestag member Volker Beck, a member of the German Parliament Human Rights Committee, whose request to visit the country was denied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by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As Mr. Beck comments, “Apparently, the government doesn’t want to discuss human rights issues with the German parliament.” Listen to the interview here:
 - b. [Part 1 \(2 minutes\)](#), [Part 2 \(3 minutes\)](#)
 - c. In Uzbek, the [BBC article from the interview is available here.](#), BBC Uzbek, 12 September 2012
64. [“German MPs upset by denial of visit to Tashkent”](#) UzNews.net, 11 September 2012
65. [“Uzbekistan: Parents are sent out to harvest cotton instead of their children”](#) Ferghana News, 11 September 2012
66. [“Cotton–picking students face shortages of water, food”](#) UzNews.net, 11 September 2012
67. [“Uzbekistan cancels visit by German MPs”](#) UzNews.net, 10 September 2012
68. [“Usbekistan darf ungestraft Kinder ausbeuten”](#) Financial Times Deutschland, 10 September 2012
69. [“Cotton harvesting leaves Uzbek banks without cash”](#) UzNews.net, 8 September 2012
70. [“Fashion week in New York without Guli and Uzbek cotton”](#) UzNews.net, 6 September 2012
71. [“Uzbekistan announces massive mobilization of school teachers for cotton harvest campaign”](#) CA–News.org, 5 September 2012
72. [“Corruptistan: Meet the oil barons, fashion divas, and ruling families of Central Asia”](#) Foreign Policy, 4 September 2012
73. [“Dumb slaves, or Cotton under the barrel of a gun”](#) Ferghana News, 3 September 2012



**Observations of the 2012 Cotton Harvest in Uzbekistan:
*FORCED CHILD LABOR CONTINUED.
FORCED LABOR OF ADULTS INTENSIFIED.
GOVERNMENT OF UZBEKISTAN RESPONDS TO PRESSURE.
ACHIEVING PROGRESS REQUIRES STRONGER PRESSURE***

As the 2012 cotton harvest in Uzbekistan concludes, this document by the Cotton Campaign presents observations by civil society throughout the harvest and preliminary lessons learned.

NO INDEPENDENT MONITORING

Once again,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failed to invite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o conduct monitoring during the 2012 cotton harvest. Since 2009 the ILO has [called](#) on the Uzbek government to respond to continued reports from workers, employers, and civil society of systematic and persistent use of forced labor of children and adults in Uzbekistan's cotton fields. Since 2010 the ILO tripartite supervisory body has [called](#) on the GOU to invite a high-level tripartite mission to conduct unfettered monitoring during the cotton harvest. In 2012, the ILO offered the Uzbek government an opportunity to take an initial [step](#) by inviting an ILO technical assistance team that would monitor during the harvest. The GOU has steadfastly refused to grant access to the ILO.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continued to harass, intimidate and repress citizens who attempt to monitor the 2012 cotton harvest. Farms were under surveillance by police. Gulshan Karaeva of the Human Rights Society of Uzbekistan (HRSU) was [arrested](#) on opaque charges of "slander" on September 27, ensuring that she would not be able to report on the cotton harvest as she had done in previous years. Uktam Pardaev of the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 of Uzbekistan was arrested on September 30. On October 20, members of the Human Rights Alliance of Uzbekistan (HRAU) were [forced into hiding](#) by local police after they photographed young children picking cotton in the Kashkadarya Region. The national Internet service provider [Uztelecom](#) blocked web proxy clients, the only way for the majority of Uzbek people to bypass Internet censorship and to access websites blocked in the country, *e.g.* www.cottoncampaign.org.

No international company invested in Uzbekistan has conducted human rights due diligence despite the high risk of complicity in the system of forced labor of children and adults in the cotton sector. The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establish the responsibility to conduct human rights due diligence, starting with independent risk assessments and civil-society led monitoring.

FORCED CHILD LABOR CONTINUED

Forced child labor continued despite the statement issued by the Prime Minister of Uzbekistan prior to the

harvest, which merely reiterated national law that prohibits child labor and the country's ratification³⁰ of ILO Conventions No. 138 and No. 182. As in [previous years](#), state-sponsored forced child labor increased at the end of the harvest; schools that had been open during the beginning of the season were closed for the children to finish the harvest.

International law defines forced labor of people up to and including age 17 as a worst form of child labor.³¹ The Labor Code of Uzbekistan mandates that the minimum working age is 16.³² The Constitution of Uzbekistan specifically prohibits forced or bonded labor. Starting September 5, 2012, older children (grades 9+ and ages 16-17) were sent to the cotton fields across the country, under threat of expulsion or loss of student housing services.³³ The older children were forced to pick a daily quota of 60 kilograms of cotton and stayed in barracks - often lacking adequate hygienic conditions, food and potable water. There were many reports of students beaten by public authorities for failing to meet their quotas. Throughout the harvest, younger children (grades 1-8 and ages 7-15) were forced to pick cotton after school hours, and some schools were closed for the younger children to pick cotton.

Teachers in the Ishtihon district of Samarkand region [reported](#) on September 28 that their school children (ages 11+) were sent to pick cotton. On September 29, students ages 14 and 15 from School No. 1 in the Zarbdar district of Jizzak region were taken to pick cotton by the school's director. In September, schools in Tashkent and Kashkadarya regions began to send students ages 13+ to pick cotton. Starting September 20, young children (grades 4-5, ages 10-11) were forced to pick cotton in the Kashkadarya region. In Angren, parents of older children were [reportedly](#) offered two options for the 2012 cotton harvest: to pay 300,000 sums (approximately USD \$110) not to send their children to harvesting or to withdraw their documents from the lyceum (university-preparatory high school) by 1 November.

INTENSIFICATION OF FORCED LABOR OF ADULTS

Massive forced labor of adults began 3 September. Authorities instructed 16-17% of each government agency's workforce to work in the cotton fields for an average of 2 weeks per person. All government employees – teachers, doctors, nurses, health care workers, bank staff, non-ranking military, staff of ministries and all university students were eligible to be sent to pick cotton. For teachers, reportedly 60% of teachers from each school were forced to pick cotton. Government employees were forced to participate in the cotton harvest under threat of losing their job, pay or benefits.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mahalla* committees were also mobilized for the cotton harvest, using the threat of losing

³⁰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ratified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Conventions No. 105 on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in 1997, No. 182 on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in 2008, and No. 138 on Minimum Age in 2009; http://www.ilo.org/dyn/normlex/en/f?p=1000:10011:0::NO::P10011_DISPLAY_BY,P10011_CONVENTION_TYPE_CODE:1,F.

³¹ Article 3 of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Convention No. 182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available at http://www.ilo.org/dyn/normlex/en/f?p=1000:12100:0::NO::P12100_ILO_CODE:C182.

³²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Labor Trends: Uzbekistan 2006," available at <http://www.state.gov/j/drl/rls/78396.htm#d>.

³³ For alignment of ages and levels of the education system of Uzbekistan, se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Uzbekistan: structure of the education system," *World Data on Education, VII Ed. 2010/2011*, page available at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1/002113/211314e.pdf>.

social welfare benefits, which the *mahallas* committees are responsible for distributing to low-income citizens. Private companies were also ordered to send employees to pick cotton and to provide resources for the harvest.

Threats of punishment for not participating were enforced. A mother who asked for an exemption to care for her newborn was told that she would lose her maternity support if she did not fulfill her harvest duty. Two employers (owners of transportation companies in the capital Tashkent) were arrested for refusing. For approximately \$200, people could buy an exemption from picking cotton, a practice that introduced a new form of exploitation of citizens during the cotton harvest.

Nonpayment of wages for picking cotton was more prevalent in 2012 than previous harvests. Initial indications highlight widespread nonpayment of wages to adult cotton pickers. Many reports have indicated that anyone who did not meet quota was required to pay for cotton to make up the difference.

Forced labor of adults violates the national law and ILO Convention No. 105, ratified by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The scale of forced labor of government employees also disrupted the delivery of essential public services, including schools, hospitals, transportation and banking. Citizens reported that schools had to cancel lessons, merge classes to 60-pupils in a classroom, and use teachers to teach subjects that they are unprepared to teach, *e.g.* an English teacher delivering mathematics. Hospitals had to turn away patients due to insufficient medical personnel, because they are obliged to send the staff to harvest cotton.

ZERO PROGRESS AND CONTINUED DENIAL BY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Delivered by the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of Uzbekistan, claims of “reform” by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echoed ridiculously through the cotton fields where forced labor of children and adults continued.

Throughout the harvest, the state-owned news service UzInform.com proudly reported the use of forced labor. The agency praised teachers of Namangan for working on the national holiday “Teachers’ Day” and highlighted the gift of ‘quality shoes that they will need in the field’ given to teachers who picked the most cotton.³⁴ On 8 October, UzInform reported that faculty of Namangan Engineering Technology Institute gave students “gifts and diplomas” for picking more than their quota of cotton.³⁵ The following day, UzInform reported that the Union of Journalists of Uzbekistan praised students of Ferghana State University for their courage and assistance to the state development and gave them gifts for picking cotton.³⁶ The news service continued reporting throughout the harvest, highlighting the participation of construction workers picking cotton in the Navoi region³⁷ and employees of financial firms in the Namangan region³⁸.

Claiming progress in reforming the agricultural sector, President Islam Karimov signed a document on October 22 that included as a priority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protection of rights, interests and

³⁴ «Наманганские педагоги на полях и в праздники,” UzInform, 7 October 2012.

³⁵ “Студенты помогают хлопкоробам,” UzInform, 8 October 2012.

³⁶ “Поддержали студентов,” UzInform, 9 October 2012

³⁷ “Навоий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омогает хлопкоробам 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 UzInform, 9 October 2012

³⁸ “Наманганские финансисты вышли на хлопковые поля,” UzInform, 10 October 2012

operations of farms. The decree had the immediate effect of closing the Association of Farmers of Uzbekistan and replacing it with the Council of Farmers of Uzbekistan. It is difficult to know what to expect from the statement, considering the 2012 cotton harvest began with a statement from Tashkent against child labor and proceeded with the continuation of forced labor of children and adults.

CONTINUE THE PRESSURE: GOVERNMENT OF UZBEKISTAN RESPONDS

The preliminary lessons learned from the 2012 cotton harvest are that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reacts to pressure but stronger pressure is required to end forced labor of children and adults in the cotton sector. By issuing a statement banning child labor in the cotton fields, the GOU attempted to allay international pressure to reform its cotton sector, but the statement merely reiterated its previously established commitments under 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standards. Continued forced labor of children and adults points to the complete and continued failure of the GOU to implement its commitments. During the 2012 cotton harvest, forced labor was reported in all of the twelve provinces, one autonomous republic, and one city administrative center of Uzbekistan.³⁹

This is not the first year that state-sponsored forced labor of adults has been used in the cotton harvest of Uzbekistan, but indications are that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has increased the scale of its use for the 2012 harvest. Since 2007, [reports](#) from field investigations, including by the [BBC](#), have highlighted the use of coercion to force farmers, government employees, students and school children to labor for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which obtains an estimated at \$1billion USD annually from cotton exports and maintains complete secrecy over the use of this national income. United Nations agencies have consistently called on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to address the systemic and continuous failure to comply with its commitments; for example, in [2009](#), the tripartite supervisory body of the ILO called attention to failure of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to implement Conventions No. 29 on and No. 105 on the Abolition of Forced Labor.

Midway through, the 2012 harvest is evincing that the government has not taken any steps toward reforming the cotton sector from a forced-labor industry into an industry based on economic incentives. As [reported](#) by international observers since 2005, forced labor of children and adults are symptoms of structural problems in the cotton sector. Without reforming the cotton sector, the demand for forced labor of children and adults remains.

The Cotton Campaign continues to [call](#) on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to invite a tripartite high level mission of the ILO to conduct unfettered monitoring. Meanwhile, we call on governments and companies as well as investors to use their leverage to urge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to end the forced labor of children and adults in its cotton sector. Inaction only ensures continued state-sponsored forced labor of Uzbek children and adults.

³⁹ Uzbekistan's administrative areas include: 12 provinces (viloyatlar, singular - viloyat): Andijon Viloyati, Bukhara Region / Buxoro Viloyati, Fergana region / Farg'ona Viloyati, Jizzakh region / Jizzax Viloyati, Namangan Viloyati, Navoiy Viloyati, Kashkadarya region / Qashqadaryo Viloyati (Qarshi), Samarkand region / Samarqand Viloyati, Syrdarya region / Sirdaryo Viloyati (Guliston), Surkhandarya region / Surxondaryo Viloyati (Termiz), Toshkent Viloyati [Tashkent province], Khorezm region / Xorazm Viloyati (Urganch). 1 autonomous republic* (respublika): Qoraqalpog'iston Respublikasi [Karakalpakstan Republic]* (Nukus). 1 city** (shahar)

Toshkent Shahri [Tashkent City]**

Primary Sources:

- Personal interviews with human rights defenders in Uzbekistan by the Cotton Campaign, September-October 2012.
- Uzbek-German Forum for Human Rights, *Chronicle of Forced Labour 2012*, <<http://uzbekgermanforum.org/category/cotton-chronicle/>>.
- BBC, <<http://www.bbc.co.uk/news>>.
- Central Asia News Service, <<http://en.ca-news.org/news:516252/>>.
- Fergana Information Agency, <<http://enews.fergananews.com/article.php?id=2782>>.
-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 <<http://www.rferl.org/archive/Uzbekistan/latest/671/671.html>>.
- UzNews.net, <<http://www.uznews.net/index.php?lng=en>>.
- UzInform, <<http://www.uzinform.com>>.
- The Washington Times, <<http://www.washingtontimes.com/>>.

Media Reports and Articles during the 2012 Cotton Harvest:

74. [Chronicle Of Forced Child Labour 2012](#), Uzbek - German Forum for Human Rights, 2012
75. [“The Cotton Campaign: Who Are You Wearing?”](#) Good Men Project, 24 November 2012
76. [“UZBEKISTAN: Cotton ban gains momentum with apparel firms”](#) Just-Style, 9 November 2012
77. [“Uzbekistan to use new technologies to pack cotton-fiber”](#) UzDaily, 6 November 2012
78. [“Human rights activist arrested for seeking meeting with Uzbek prosecutor-general”](#) UzNews, 3 November 2012
79. [“More Than 100 Top Brands Boycott Uzbek Cotton Over Forced Labor”](#) Radio Liberty, 2 November 2012
80. [“Over 100 companies boycotting Uzbek cotton”](#) UzNews, 2 November 2012
81. [“Over 100 top brands boycott Uzbek cotton over forced child labor”](#) CA-News, 2 November 2012
82. [“Geographical Shift in Cotton Mill Use”](#) Press Release, International Cotton Advisory Committee, 1 November 2012
83. [“Uzbekistan: Over 100 Companies Eschew Uzbek Cotton”](#) EurasiaNet, 1 November 2012
84. [“Lyceum students face expulsion for not picking cotton”](#) UzNews, 30 October 2012
85. [“Schoolchildren in cotton fields in Kashkadarya”](#) UzNews, 25 October 2012
86. [“Uzbekistan: Human rights activists discover school children at cotton fields in Kashkadarya region”](#) Fergana, 25 October 2012
87. [“Kyrgyz journalist Alisher Saipov was murdered five years ago”](#) UzNews, 25 October 2012
88. [“Over 20 British companies discuss prospective business projects with Uzbekistan”](#) CA-NEWS, 25 October 2012
89. [“Uzbekistan Farmers Association Abolished”](#) UZ Daily, 24 2012 (Note: Only the headline reported by Uz Daily)
90. [“World Bank: Uzbekistan has the worst business conditions amongst Eastern European and Central Asian countries”](#) Fergana Information Agency, 24 October 2012
91. [“Uzbekistan: delegation of businessmen from Great Britain to go to Tashkent to discuss trade issues”](#) Fergana Information Agency, 24 October 2012

92. [“Kinderarbeit Löning fordert Boykott gegen Usbekistan”](#) (Löning calls for boycott against Uzbekistan), Spiegel, 23 October 2012
93. [“Uzbekistan harvests 3.35mn tons of cotton this season”](#) Fibre 2 Fashion, October 23, 2012
94. [“Cotton producers in Uzbekistan yield over 3.35 mln tons of cotton”](#) CA News, 22 October 2012
95. [“Cotton Campaign reminds US would-be presidents of cotton slavery in Uzbekistan”](#) UzNews, 20 October 2012
96. [“Tashkent holds cotton fair in secrecy”](#) UzNews, 19 October 2012
97. [“Uzbek college students return from cotton fields”](#) UzNews, 19 October 2012
98. [“Cotton Campaign Calls on President Obama and Mr. Romney to Speak Out Against Slavery in Uzbekistan”](#) Fergana News, 19 October 2012
99. [“Uzbekistan inks contracts for export of 670,000 tonnes of cotton fiber”](#) UzDaily, 18 October 2012
100. [“Uzbek authorities open criminal case against opposition leader’s father”](#) UzNews, 18 October 2012
101. [“Rights activist’s 100-year-old grandma notifies president of new picket”](#) UzNews, 18 October 2012
102. [“Uzbekistan plans to increase cotton-fiber processing up to 70% by 2015”](#) UzDaily, 17 October 2012
103. [“Uzbekistan Tightens Grip on Internet Proxies”](#) EurasiaNet.org, 17 October 2012
104. [“Uzbekistan: Doctors and Nurses Forced into Cotton Fields”](#) EurasiaNet.org, 16 October 2012
105. [“Documents Link Uzbekistan’s Karimova To Money-Laundering Suspect”](#)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 16 October 2012
106. [“Doctors and nurses forced to pick cotton“](#), BBC News, 15 October 2012
107. [“Unwilling Cotton Harvesters in Uzbekistan”](#) Institute for War & Peace Reporting, 13 October 2012
108. [“Centennial grandma to picket in support of rights activist in Karshi”](#) UzNews, 13 October 2012
109. [“Uzbekistan toughens Internet censorship”](#) UzNews, 11 October 2012
110. [“Several Arrested’ Over Uzbek Teenager’s Death”](#) Radio Free Europe / Radio Liberty, 10 October 2012
111. [“Uzbek Prosecutor General’s Office ignores children in cotton fields”](#) UzNews, 10 October 2012
112. [“Picket in support of arrested rights defender dispersed in Tashkent”](#) UzNews, 9 October 2012
113. [“Voice Of Dissent Flees Uzbekistan”](#)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 8 October 2012
114. [“Elnur & Ruslan Textile opens new plant on production of children clothes”](#) UzDaily, 8 October 2012
115. [“Tajikistan conference to discuss integration of Central Asia into world trade”](#) CA-News, 08 October 2012

116. "[Uzbekistan: Arrest of human rights defender Gulshan Karaeva](#)" Front Line Defenders, 5 October 2012
117. "[Uzbeks bristle under regime's Web scrutiny](#)" The Washington Times, 1 October 2012
118. "[Schoolboy's mother helps teacher return from cotton picking](#)" UzNews, 29 September 2012
119. "[Trade union member dies in cotton field in Tashkent Region](#)" UzNews, 28 September 2012
120. "[Uzbek government breaks promise to end child labor in cotton fields](#)" The Washington Times, 24 September 2012
121. "[Schoolchildren studying while college students still picking cotton](#)" UzNews 21 September 2012
122. "[Police threaten family for student's failure to pick cotton](#)" UzNews, 21 September 2012
123. "[Uzbekistan involves school students into cotton picking campaign](#)" CA-News, 21 September 2012
124. "[Uzbek schoolchildren sent to cotton fields](#)" UzNews, 19 September 2012
125. "[Tashkent sends emergency doctors to pick cotton](#)" UzNews, 18 September 2012
126. "[Uzbek government tightens Internet censorship](#)" UzNews, 18 September 2012
127. "[Uzdunrobita managers convicted, MTS subsidiary now owned by government](#)" Ferghana News, 18 News 2012
128. "[Karakalpakstan: No work in wasteland](#)" UzNews, 18 September 2012
129. "[Korean company to commission textile production in Uzbekistan](#)" Trend News Agency, 17 September 2012
130. "[Uzbekistan: Bloggers and Ministry of Justice staff picking cotton instead of farmers](#)" Ferghana News 17 September 2012
131. "[Cotton Harvest Derails Uzbek Transport](#)" RFE/RL's Uzbek Service, 13 September 2012
132. "[We don't use child labor and no you can't have a look](#)" CA-News, 13 September 2012
133. "[Businesses forced to sponsor cotton harvesting in Angren](#)" UzNews, 12 September 2012
134. "[Uzbek teachers sent to cotton fields](#)" UzNews, 12 September 2012
135. "[The World Bank has donated \\$ 40 million to Uzbekistan to support agriculture](#)" Baku Today, 12 September 2012
136. "Someone who is cooperating with us needs also to be transparent."
 - a. Today, the BBC interviewed German Bundestag member Volker Beck, a member of the German Parliament Human Rights Committee, whose request to visit the country was denied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by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As Mr. Beck comments, "Apparently, the government doesn't want to discuss human rights issues with the German parliament." Listen to the interview here:
 - b. [Part 1 \(2 minutes\)](#), [Part 2 \(3 minutes\)](#)
 - c. In Uzbek, the [BBC article from the interview is available here.](#), BBC Uzbek, 12 September 2012
137. "[German MPs upset by denial of visit to Tashkent](#)" UzNews.net, 11 September 2012
138. "[Uzbekistan: Parents are sent out to harvest cotton instead of their children](#)" Ferghana News, 11 September 2012

139. "[Cotton-picking students face shortages of water, food](#)" UzNews.net, 11 September 2012
140. "[Uzbekistan cancels visit by German MPs](#)" UzNews.net, 10 September 2012
141. "[Uzbekistan darf ungestraft Kinder ausbeuten](#)" Financial Times Deutschland, 10 September 2012
142. "[Cotton harvesting leaves Uzbek banks without cash](#)" UzNews.net, 8 September 2012
143. "[Fashion week in New York without Guli and Uzbek cotton](#)" UzNews.net, 6 September 2012
144. "[Uzbekistan announces massive mobilization of school teachers for cotton harvest campaign](#)" CA-News.org, 5 September 2012
145. "[Corruptistan: Meet the oil barons, fashion divas, and ruling families of Central Asia](#)" Foreign Policy, 4 September 2012
146. "[Dumb slaves, or Cotton under the barrel of a gun](#)" Ferghana News, 3 September 2012

우즈베크 목화 농장에서의 강제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Sean Rudolph

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

우즈벡 목화 농장에서의 강제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Sean Rudolph (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

The Cotton Campaign

Cotton Campaign 의 초점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목화 분야 (cotton sector)에서 어린이와 어른의 강제노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정치적 의지를 높이는 데에 있다. 목화 분야에서 강제노동이 금지된다는 것은 강제 생산 할당량이 폐지되고, 목화 생산 농부들에게 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생산 결정권이 보장되고, 농업에 투입할 종자, 씨앗, 묘목들을 경쟁시장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경쟁시장에서 목화 및 다른 농산물들을 수확한 것을 팔 수 있으며, 국내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정부의 책임이 이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Cotton Campaign 의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미국과 유럽의 무역법 집행을 통한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높인다.
- 다자간 기구를 동원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착취적인 노동 관행에 대하여 국제적인 압력이 행사되도록 한다.
- 소비자 및 기업 대상의 캠페인을 통하여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생산을 위한 국가 지원 하의 강제노동제도에 대하여 경제적인 압력이 행사되도록 한다.

한국의 기업체와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중요한 국제 파트너 중 하나로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목화 분야에서의 강제노동 사용에 대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이 브리핑을 통하여 Cotton Campaign과 우즈베키스탄의 시민사회의 대표가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분야에서 강제 노동을 중지하기 위하여 취해왔던 대응들과, 한국의 시민사회, 기업, 그리고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크게 3가지로 나누자면, 유럽과 미국의 무역법 메커니즘, 다국적 메커니즘, 소비자 및 기업 대상 캠페인으로 나누어 진다.

유럽과 미국의 무역법 메커니즘: 유럽과 미국의 무역법 집행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증가시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의 가이드라인과 기업과 인권에 대한 UN의 원칙은 기업이 위험도가 높은 곳에서 운영을 할 때에 인권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상당주의의무('due diligence')의 이행의 첫 단계로서, 독립적인 평가와 감시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OECD NCP의 활용은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국가의 강제 노동 제도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이들의 피고용자들이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통해, 인권 존중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표준적인 관행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otton Campaign에서 OECD NCP의 첫 번째 실행은 European Center for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ECCHR)이 목화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ECCHR은 프랑스의 OECD NCP 지부와 가장 성공적으로 일을 했는데, 이들은 목화 무역회사 Devcot에 대한 사건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Devcot은 우즈베키스탄의 아동강제노동이 종료될 때까지 면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NCP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즈베키스탄 목화 농장에서의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은 악명 높고 특징적으로 OECD 가이드라인에 대한 위반이 된다. 일반적으로 NCP는 강제 아동 노동으로 인해 생산되어 거래 되는 제품들은 어디에서든지, 악명 높고 특징적으로 OECD 가이드라인에 대한 위반이 된다." ... "우즈베키스탄에서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의 문제는 아직도 심각하게 남아 있다."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미국 관세법 하의 진정: Smoot-Hawley 관세법은 진정인이 미국 관세청에 강제노동 및 아동 강제노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생산품들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도록 진정할 수 있는 법이다. 미국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물건의 리스트 (US List of goods Produced by Child Labor or Forced Labor)에는 우즈베크 목화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으로 만들어진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우즈베크 목화를 미국으로 수입하는 회사들은 관세법에 의한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써 지정된 국가와 영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보호하는 조건하에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은 미국의 무역 대표 (Trade Representative)에게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 하에서 우즈베크 정부가 누리고 있는 무역 상 이익에 대하여 우즈베크 정부의 자격 요

건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다.

유럽연합 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유럽연합 일반특혜관세 제도는 개발도상국에게 유럽연합 시장에 절감된 관세로 접근할 수 있는 이득을, 기초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건하에 주었다. 유럽연합 의회는 2011년 12월, 우즈베키스탄이 자국 면 사업에 강제 노동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우려 때문에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거래를 연장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압도적으로 거절하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유럽연합에 근거를 두고 있는 Cotton Coalition 파트너들은 일반특혜관세제도 하에서 기초적인 노동 권리와 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적합성에 대해서 우즈베키스탄의 적합성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한다.

유럽연합 세계 인권 전략 (European Union Global Human Rights Strategy): 유럽연합은 인권 조약에 부응하는 무역과 외교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세계 인권 전략을 설립하였다. Coalition은 E유럽연합의 중앙아시아를 위한 특별대표와 의사소통을 하며,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국제노동기구를 초청하여 목화 수확을 감시하게 할 것을 촉구하도록 요청했다.

다자간 기구 메커니즘: 다자간 기구를 동원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착취적인 노동 관행에 대하여 국제적인 압력이 행사되도록 한다.

유엔: 유엔의 인권 및 아동권리에 관한 유엔의 주요 기구들에 대한 애드보커시를 통하여 우즈베크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해 문서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알리고, 정부들이 우즈베크 정부와의 양자간 관계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얻도록 한다.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 노사정감독위원회(tripartite supervisory body)는 몇 년 동안, 우즈베크 정부가 목화 수확기간 동안 위원회의 강도 높은 무제한 목화 수확 모니터링 임무 수행을 허락하도록 권고를 하였다. Cotton Coalition 참가자들- 특히 ILRF, AFL-CIO, the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 Solidarity Center, Open Society Foundation, Anti-Slavery International, ECCHR and Uniting Church in Australia - 이 이러한 국제노동기구의 파견을 지지하기 위하여 일해왔다. 우즈베크 정부의 지속적인 국제노동기구의 임무의 파견을 거절을 고려하여, 고용주들의 국제 조직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Employers) 및 국제노동조합연맹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은 공동으로 우즈베크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협약 105호(강제노동의 폐지)와 182호(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근절)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제네바에서 2013년 3월 7일

부터 28일에 열리는 317회 회기 중 국제노동기구 지도부에 제 24조에 의거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Anti-Slavery International 와 Uzbek German Forum for Human Rights 는 우즈벡 정부가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아동권리협약의 불이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61번째, 62번째 세션전 워킹그룹에서 제시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이어서 우즈벡 정부가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매매, 매춘,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심의를 위해 검토해야 할 이슈 리스트들을 발행했다.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 제도: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 제도(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는 모든 유엔 국가들의 인권 기록들을 심사하는 독특한 과정입니다. UPR 은 국가기반의 과정으로서, 인권이사회의 후원 아래, 각 국가들이 인권 의무 이행을 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선언할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Cotton Coalition은 2013년 5~6월 16차 회기로 예정된 우즈베키스탄의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제도를 위하여 목화 산업에서 국가 지원의 강제노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에 대해서 제출을 하였다.

소비자 및 기업 대상의 캠페인: 소비자 및 기업 대상의 캠페인을 통하여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생산을 위한 국가 지원 하의 강제노동제도에 대하여 경제적인 압력이 행사되도록 한다.

Responsible Sourcing Network Cotton Pledge: 120개가 넘는 국제적인 의류 브랜드와 소매업자들이 우즈베키스탄이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목화 수확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는 목화를 사용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Zara, JC Penney, American Eagle, Fruit of the Loom 등의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서약자들에 포함되어 있으며, Gucci, H&M, Wal-Mart, American Apparel and Footwear Association(AAFA) 등의 브랜드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현재 미국 의류와 신발사업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목화서약 (Cotton Pledge)는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Responsible Sourcing Network(RSN)가 2004년에 시작된 우즈베키스탄 인권단체들이 행동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던 데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된 운동이다. 서명한 회사들은 국제노동기구가 독립적으로 시행한 감사를 통해서 강제노동이 종식되었다는 것을 밝힐 때까지 우즈벡 목화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대상 캠페인: Cotton Coalition은 목화 공급망에 대해 인권 보장에 대한 상당주의 의무 (due diligence)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기업들이 아동노동에

근거하여 우즈벡 목화를 사용하는 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많은 관련자들은 거의 모든 기업들과 소매업자들은 목화의 원산지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즈벡 시민사회와 Cotton Coalition은 기업들이 우즈벡의 강제노동으로 인한 목화 수확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기업들과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함으로써 우즈벡 목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브랜드나 소매업자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일 수 있다. 포스코가 소유하고 있는 대우인터네셔널은 우즈벡 목화의 가장 중요한 소비자입니다. 대우인터네셔널은 세 곳의 공장을 통하여 우즈벡에서 가공되는 목화 중의 20% 이상을 가공하고 있으며,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면 거래, 방직공장, 직물제조 및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 접근: Cotton Campaign은 몇몇 사회적 책임 투자기업과 대우나 포스코와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연금기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에는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인덱스에 포스코에 대한 심사를 촉구하는 것, Association for Sustainable & Responsible Investment in Asia와의 협력을 통해서 포스코와 대우와 대화를 유도하는 전략 등이 있다.

The Actions of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gards to Forced Labor in Uzbek Cotton Fields

The Cotton Campaign

The focus of the Cotton Campaign is to increase political will in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GOU) to end forced labor of children and adults in its cotton sector. Ending forced labor in the cotton sector means abolishing compulsory production quotas; ensuring that cotton farmers have decision-making authority over the use of their land, access to competitive markets to obtain agricultural inputs, and access to competitive markets to sell cotton and other agricultural outputs; and increasing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at all levels to Uzbek citizens an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To advance towards this result, the strategic objectives of the Cotton Campaign are to:

- Increase economic and diplomatic pressure through US and European Trade Law Enforcement.
- Engage multilateral organizations in order to leverage additional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Uzbekistan's abusive labor practices.
- Maintain consumer and company-facing campaigns in order to leverage economic pressure against Uzbekistan's state-sponsored forced labor system of cotton production.

As one of Uzbekistan's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partners, Korean businesses and the government of Korea are in a unique position to influence the GOU's use of forced labor in the cotton sector.

This briefing summarizes the actions the Cotton Campaign and representatives of Uzbek civil society have taken to address forced labor in Uzbekistan's Cotton Sector and offers an outline of possible steps Korean civil society, businesses and the government of Korea could pursue to address the issue. The brief is divided into three sections: European and U.S. Trade Law Mechanisms, Multinational Mechanisms, and Consumer and Company-facing Campaigns.

European and U.S. Trade Law Mechanisms: *Increase economic and diplomatic pressure on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through European and US Trade Law Enforcement.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National Contact Point (NCP):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UN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call on companies to conduct independent assessments and monitoring as the first step in human rights due diligence when operating in areas of high risk. The use of the OECD NCPs aims to establish as standard practice that companies invested in Uzbekistan assume their duty to respect human rights by preve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to their employees and their communities that result from the state system of forced labor.

The first use of OECD NCPs in the Cotton Campaign was done by European Center for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 (ECCHR) and targeted the cotton trading companies. ECCHR worked most successfully with the OECD NCPs of France to review the case of the cotton trading company Devcot. As a result, Devcot publicly committed to not buy Uzbek cotton until forced child labor is ended, and most significantly, the NCP stated that “...in any circumstance, child labor and forced labor in Uzbekistan’s cotton fields constitute a flagrant and characterized violation of the OECD Guidelines. Generally, the NCP further recalls that the trade of products issued from forced child labor, wherever it takes place, constitutes a flagrant and characterized violation of the OECD Guidelines.” ...“The situation in terms of forced labor and child labor remains clearly critical in Uzbekistan.”

U.S. Tariff Act Complaints: Smoot–Hawley Tariff Act of 1930 allows petitioners to file complaints with United States Customs requesting the full enforcement of the Act, which prohibits the import of goods made with forced and forced child labor. The US *List of Goods Produced by Child Labor or Forced Labor* lists Uzbek cotton under products produced by forced labor and child labor. Companies importing Uzbek cotton into the US are exposing themselves to legal action under the Tariff Act.

U.S.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The United States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is a program designed to promote economic growth in the developing world by providing preferential duty–free entry for products from designated beneficiary countries and territories, conditional on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labor rights. Currently the 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 has a pending petition filed with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to revoke the GOU’s eligibility to trade benefits under the US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trade program.

European Union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GSP): EU GSP provides developing countries preferential access to the EU market through reduced tariffs, conditional on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labor rights. The European Parliament clearly expressed its views when in December 2011 MEPs overwhelmingly rejected a proposal to extend a trade deal with Uzbekistan due to concerns over the ongoing use of forced labour in the country’s cotton

industry. European-based Cotton Coalition partners are attempting to secure an investigation of Uzbekistan's eligibility for the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GSP), which requires compliance with fundamental labor rights as a condition to maintain GSP eligibility.

European Union Global Human Rights Strategy: In June, the EU established its Global Human Rights Strategy, to align trade an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human-rights commitments established therein. The Coalition maintains communications with the EU Special Representative for Central Asia, calling on her to urge the Uzbek government to invite the ILO to monitor the cotton harvest.

Multilateral Organization Mechanisms: Engage multilateral organizations in order to leverage additional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Uzbekistan's abusive labor practices.

United Nations: Advocacy with the key UN agencies on labor, human rights and children's rights aims to establish international documentation of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commitments by the GOU and to guide governments in their bilateral relations with Uzbekistan.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Securing access for a high-level mission of the ILO to conduct unfettered monitoring during the cotton harvest in Uzbekistan has been a recommendation of the tripartite supervisory body of the ILO for years. Cotton Coalition participants – particularly ILRF, AFL-CIO, the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 Solidarity Center, Open Society Foundation, Anti-Slavery International, ECCHR and Uniting Church in Australia – have worked to support such an ILO mission. Based on the GOU continued refusal to accept an ILO missio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Employers and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plan to jointly submit an Article 24 representation concerning the failure by the GOU to demonstrate its application of ILO Conventions No. 105 (on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and No. 182 (on the Eradic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to the ILO Governing Body for its consideration during the 317th Session, 7 – 28 March 2013 in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Anti-Slavery International and the Uzbek German Forum for Human Rights presented evidence of the serious and continuing failure of the GOU to comply with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61st and 62nd Pre-Sessional Working Group. The CRC subsequently published its List of Issues on which the GOU will be reviewed for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OPSC), and the Optional Protocol on Armed Conflict (OPAC).

UN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is a unique process which involves a review of the human rights records of all UN Member States. The UPR is a State-driven process, under the auspic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which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each State to declare what actions they have taken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their countries and to fulfill their human rights obligations. This year the Cotton Coalition submitted evidence of the continued state-sponsored forced labor system of cotton production for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Uzbekistan, 16th session, May–June 2013.

Consumer and Company-facing Campaigns: *Maintain consumer and company-facing campaigns in order to leverage economic pressure against Uzbekistan's cotton industry.*

Responsible Sourcing Network Cotton Pledge: More than 120 international apparel brands and retailers have now pledged to ban the use of cotton from Uzbekistan as part of efforts to stop the country from using forced and child labor to harvest its cotton crop. Zara, JC Penney, American Eagle, and Fruit of the Loom are the most recent companies to join the growing list of signatories, which include Gucci, H&M, Wal-Mart, and the American Apparel and Footwear Association (AAFA), which represents more than 75% of the US apparel and footwear industry. The US-based Responsible Sourcing Network (RSN) has coordinated the Cotton Pledge, which builds on efforts that began in 2004 in response to a call to action by Uzbek human rights groups. The companies say they intend to maintain the ban on Uzbek cotton until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independently verifies the end of forced labour.

Corporate Campaigns: The Cotton Coalition continues to pursue efforts to operationalize the commitments of companies to conduct human rights due diligence in their supply chains. Since companies initially began to state positions against using Uzbek cotton on the basis of child labor, many brands and industry associations have admitted that nearly all global brands and retailers are unable to trace cotton to its origin. Therefore, Uzbek civil society and the Cotton Coalition are working with companies to avoid using Uzbek cotton by ceasing business with companies that are known to profit from the Uzbek forced-labor system of cotton production and likely to interface with the brands and retailers. Daewoo International, which is owned by POSCO, is the most significant in country consumer of Uzbek cotton. Daewoo operates three processing facilities accounting for over 20% of all cotton processed in Uzbekistan and maintains cotton trade, spinning, textile manufacturing and cut-and-sew operations in approximately 30 countries.

Investor Leverage: The Cotton Campaign includes several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firms and pension funds that are currently pursuing strategies to engage companies, like Daewoo/POSCO, that maintain investments in Uzbek cotton sector. These strategies include directly engaging POSCO and Daewoo, pushing for a review of POSCO's listing on the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and engaging The Association for Sustainable & Responsible Investment in Asia.



Company Role in Ending Slavery in the Cotton Sector of Uzbekistan: *Implementing the Cotton Campaign Pledge*

Uzbekistan, located in Central Asia, is one of the largest exporters of cotton in the world. For decades,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has forced adults and children as young as nine to pick cotton under appalling conditions each harvest season. Provincial government officials order schoolteachers to close schools and enforce quotas in the cotton fields. The local authorities send government and private business employees to pick cotton, in order to meet cotton production quotas. The Uzbek government enforces these orders with threats; detains and tortures Uzbek activists seeking to monitor the situation; and refuses to allow international monitors to observe the cotton harvest.

Businesses have a responsibility to conduct due diligence that ensures human rights are respected in their supply chains, even if they have not contributed directly to the rights violation. Since slavery-like practices are used in Uzbekistan's cotton fields, businesses must avoid using Uzbek cotton in their supply chains until the use of forced labor in the Uzbekistan cotton sector is ended. Implementing the Cotton Campaign pledge helps companies avoid complicity in human rights violations. Businesses that actively implement the pledge will also be applying direct pressure on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to end the use of state-sponsored forced labor of children and adults in the cotton sector. Company inaction risks complicity with slavery as well as damage to the company brand by being linked to fundamental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ir supply chains.

How to take action?

1. Sign the Company Pledge against forced labor of children and adults in the cotton sector of Uzbekistan. Signing the Pledge demonstrates a company commitment to respecting human rights and is also an important public denunciation of forced labor. However, this is the very first step. Therefore, after signing the Pledge (see Annex), companies must follow up with actions to implement the commitment.

As of September 2012, over 80 companies have signed the Pledge, which states:

We, the undersigned companies are working to ensure that forced child labor does not find its way into our products. We are aware of reports documenting the systemic use of forced child labor in the harvest of cotton in Uzbekistan. We are collaborating with a multi-stakeholder coalition to raise awareness of this very serious concern, and press for its elimination.

As a signatory to this pledge, we are stating our firm opposition to the use of forced child labor in the harvest of Uzbek cotton. We commit to not knowingly source Uzbek cotton for the manufacturing of any of our products until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ends the practice of forced child labor in its cotton sector. Until the elimination of this practice is independently verifi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we will maintain this pledge.

2. Communicate company policy on Uzbek cotton throughout the supply chain and ensure that spinners, mills and manufacturers adhere to this policy. Implementation of a traceability program throughout the supply chain is integral to ensuring adherence to the policy. Share the steps taken to ensure that Uzbek cotton is not in the company's supply chain publicly, to strengthen the global message that business does not tolerate forced labor.

3. Boycott supplier companies that are using Uzbek cotton, including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 (see below), to align business practices with the company's commitment to human rights. The use of forced labor of children and adults in Uzbekistan is unique because it is sponsored by and for the benefit of the central government, not caused by a myriad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factors. Economic pressure caused by a boycott sends a strong message to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Since the government has total control of the cotton sector, boycotting Uzbek

cotton will directly and solely impact the government and not the farmers or those forced to work picking cotton.

The use of forced labor to prepare fields and harvest cotton violates the labor laws of Uzbekistan and international laws ratified by the Uzbek government, in particular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ventions No. 105 on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and No. 182 on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In addition to coercing up to two million people into forced labor in the cotton fields, the Uzbek government system of cotton production impoverishes cotton farmers and profits exclusively the repressive central government. Since Uzbek cotton enters into global supply chains, businesses are responsible for boycotting Uzbek cotton until the use of forced labor in its production ends.

Seventy-five per cent of cotton produced in Uzbekistan is exported through state-owned companies Uzprommashimpeks, Uzmarkazimpeks and Uzinterimpeks, and the remaining 25% is sold to the state-owned Uzbek Commodity Exchange for domestic sales. Bangladesh is the largest importer of raw Uzbek cotton. Uzbekistan is China's third largest source of raw cotton and fluctuates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largest suppliers of raw cotton to Germany and Italy. Russia relies on Uzbekistan for over one-third of its raw cotton imports and over 60% of its yarn imports. In Uzbekistan, foreign companies and the state-owned Ozengilsanoat Association process Uzbek cotton to produce primarily yarn, fabrics and some garments. South Korean and Turkish companies are major investors in cotton processing and manufacturing in Uzbekistan.

To avoid the risk of slave-made cotton in your brand's products, companies should ensure that first-tier suppliers do not source directly from Uzbekistan or from companies that are invested in the Uzbek cotton sector, such as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 Daewoo International is one of the largest cotton manufacturers in Uzbekistan and operates three textile companies in the country: Daewoo Textile Fergana, Daewoo Textile Bukhara, and Global Komsco Daewoo. Daewoo's Commodities and Textile Division manufactures and trades cotton, spun cotton, fabrics and finished cotton products globally. Buying cotton products from Daewoo companies supports slavery in Uzbekistan's cotton fields. Ceasing business with Daewoo companies worldwide sends a clear message to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that participation in global business depends on ending forced labor in their cotton fields.

To learn about Daewoo International companies and other companies invested in Uzbekistan's cotton sector, contact the Cotton Campaign at cottoncampaigncoordinator@gmail.com.

4. Increase transparency by introducing clauses in contracts with suppliers to require identification of cotton country of origin, and cease orders with suppliers that refuse to provide credible information. Authentic country-of-origin information for cotton can be included on bills of lading, purchase orders, packing and inventory lists, incoming material records, production records, and raw materials certifications.

Normalizing raw materials country-of-origin transparency presents companies the opportunity to deliver on their responsibilities to respect human rights. If 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s already were tracing cotton country-of-origin data, boycotting Uzbek cotton would have applied intense economic pressure on the Uzbek government, which may have ended forced labor years ago. Millions of Uzbek people would have avoided being forced to conduct work in the cotton fields. Until supply chains are more transparent, corporate codes of conduct stand on hollow ground. Raw materials country-of-origin transparency in the supply chain is fundamental to global companies' due diligence to avoid complicity in slavery in Uzbekistan's cotton fields.

5. Encourage cotton traders to utilize their leverage to generate pressure on the Uzbek government to end forced labor in the cotton sector. Traders currently trading Uzbek cotton include: Cargill Cotton UK; ICT Cotton UK; Ecom; Paul Reinhart; Sicle; Cogecot Cotton Company; IKEA Trading; Louis Dreyfus Commodities; and Copaco. The total control of the cotton industry by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means that these traders are conducting direct business with the government. Retail and brand companies drive the buying and selling of cotton by traders. Companies should use their position to demand that traders cease buying Uzbek cotton until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ends forced labor in its cotton sector.

By implementing the Cotton Campaign pledge, companies demonstrate respect for human rights throughout their supply chains and specifically pressure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to end the egregious practice of forced labor

of children and adults in their cotton sector. Additionally, implementation allows companies to safeguard and enhance their brand by demonstrating active responsiveness and gaining recognition for doing so. Finally, by implementing the steps outlined above, companies reinforce the confidence of responsible investors -- who expect companies to address tangible human rights risks -- and thereby maintain access to capital that increasingly rewards such commitment and penalizes indifference.

The Cotton Campaign recognizes the steps taken by concerned companies thus far, including public statements, direct communications to suppliers and support for letters to governmental actors.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companies to further develop and track indicators of pledge implementation, including the boycott of blacklisted companies such as Daewoo International, increased supply chain transparency, and engagement of other actors in the cotton industry.

Learn more: www.cottoncampaign.org
Contact us: cottoncampaigncoordinator@gmail.org

Annex:



PLEDGE AGREEMENT

Company Pledge Against Forced Child Labor in Uzbekistan Cotton Fields

We, the undersigned companies are working to ensure that forced child labor does not find its way into our products. We are aware of reports documenting the systemic use of forced child labor in the harvest of cotton in Uzbekistan. We are collaborating with a multi-stakeholder coalition to raise awareness of this very serious concern, and press for its elimination.

As a signatory to this pledge, we are stating our firm opposition to the use of forced child labor in the harvest of Uzbek cotton. We commit to not knowingly source Uzbek cotton for the manufacturing of any of our products until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ends the practice of forced child labor in its cotton sector. Until the elimination of this practice is independently verified by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we will maintain this pledge.

By signing this pledge, the undersigned company (please provide the desired spelling of your company name as you would like it referenced in the list of signatories)

And its brands (please list all brand names you would like to have listed)

Please check if logo/s attached (jpg/png/pdf formats accepted)

Agree/s that:

The content of the above pledge has been reviewed and approved by the company's senior management as well as the CSR and Communications Departments (where applicable and necessary).

The company grants the Responsible Sourcing Network permission to only use the company name/brand names and logos online at www.sourcingnetwork.org and in educational materials in connection with the *Company Pledge Against Forced Child Labor in Uzbekistan Cotton Fields*. Any additional use of these logos requires advanced written approval by the company.

To acknowledge your agreement to the above, please sign:

Name:

Title:

Please fill out completely and return to:
Valentina Gurney
Cotton Program Manager, Responsible Sourcing Network
Tel: +1(415)692.0725, E-mail: valentina@sourcingnetwork.org



Company Role in Ending Slavery in the Cotton Sector of Uzbekistan: *Implementing the Cotton Campaign Pledge*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에서 제일 큰 목화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지난 수십 년 매 목화 수확 시기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어른들과 최소 아홉 살 이상의 아이들을 열악한 근무 조건하에 강제로 목화채취를 시켜오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 관계자들은 학교 선생님들에게 학교 문을 닫고 목화 할당량을 채울 것을 지시합니다. 지방 당국은 정해진 목화수확 할당량을 달성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과 기업 직원들을 목화 채취장으로 보냅니다. 우즈베크 정부는 이런 지시를 협박으로 강행하고, 이 상황을 모니터 하고자 하는 우즈베크 운동가들을 구금하거나 고문하며, 국제 사찰단들의 목화 재배 모니터링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인권침해와 직접적인 연계가 없는 경우에도 그들은 자사 유통 시스템 내부 인권 보장에 대한 상당주의 의무(due diligence)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목화밭에서 노예제 같은 관행들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 목화 산업에서 강제 노동이 사라질 때까지, 우즈베크 목화사용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Cotton Campaign (목화 캠페인) 선언(내용)을 이행하면 회사들은 인권 침해에 관련되는 것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선언 내용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통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에게 강제 미성년자와 성인 노동력 투입 중단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회사들은 노예제에 연유되는 위험은 물론 회사 유통망 내의 인권 위반에 연결되므로 회사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은?

1 선언문에 서명하세요 - 우즈베키스탄 목화 산업의 아동과 성인 강제노동 반대 선언문에 서명하세요. 서약 서명은 한 기업의 인권 존중에 대한 약속이며 또한, 강제 노동에 대한 공개비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첫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약 (별첨 참조) 서명 후, 기업들은 반드시 계속된 행동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012년 9월 현재, 80개 이상의 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서약에 서명했습니다.

저희, 기업 서명자들은 아동 강제 노동력으로 우리 상품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저희는 우즈베키스탄 목화 생산과정에 체계적인 아동 강제 노동력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연합체와 합동하여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즈베키스탄 강제노동 종언을 위해 함께 일해 나갈 것입니다.

이 서약 서명인으로써, 우리는 우즈베크 목화 재배에 아동 강제 노동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목화 산업에서 강제로 아동 노동력을 투입 하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즈베크 목화를 고의로 제품 생산과정에 공급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2 유통망 내에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 우즈벡 목화에 대한 회사 방침을 유통망 전체에 전달하고, 방적업자, 직물 공장, 제조업자들이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 해주세요. 전체 유통망 내에 제품생산과정 추적 가능 프로그램 실시는 정책 고수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업들이 강제 노동을 용인 할 수 없다는 국제적인 메시지 강화를 위해, 우즈벡 목화가 업체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함께 추진해 주십시오.

3 불매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 회사들의 올바른 인권 상관습의 실천을 위해서 대우 인터내셔널(아래 참조)을 포함한 우즈벡 목화 사용 유통기업들의 상품 불매 운동을 해주세요. 우즈베키스탄의 강제노동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수많은 사회 경제 발전 요인이 아닌 중앙정부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불매 운동으로 인한 경제적 압력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게 강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목화 산업을 조정하기 때문에, 우즈벡 목화 불매운동은 농부나 목화를 채취해야하는 강제 노동자들이 아닌 오로지 정부에게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경작지 준비와 목화재배를 위한 강제 노동 사용은 우즈베키스탄 노동법과 우즈벡 정부에 의해 비준된 국제 법, 특히 강제노동 폐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05호와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no. 182) 제182호를 침해합니다. 우즈벡 정부의 강제 노동 목화 재배 시스템은 2백만 노동자를 억압하는 외에도, 목화 농부들을 빈곤에 빠지게 하면서 오직 우즈베키스탄 독재정권만 부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즈벡 목화가 국제 보급 시스템에 의해 유통되기 때문에, 강제 노동이 목화 생산에서 종식되기까지 기업들은 우즈벡 목화 불매운동에 대한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는 목화의 75%는 공기업들인 Uzprommashimpeks, Uzmarkazimpeks and Uzinterimpeks 등을 통해 수출되고, 나머지 25%는 국내 시장을 위해 공기업 우즈베키스탄 상품 거래소에 팔립니다. 방글라데시는 우즈벡 면화 (raw cotton)의 제일 큰 수입국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의 세 번째,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첫째와 두 번째를 왔다 갔다하는 면화 공급자입니다. 러시아는 전국 면화 수입의 1/3과 실수입의 60%를 우즈베키스탄 면화에 의존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외국 기업들과 국가소유 조면협회 (Ozengilsanoat Association)들이 주로 실, 직물, 천 생산을 위해 우즈벡 목화를 가공합니다. 그중, 한국과 터키 회사들은 우즈베키스탄 목화가공과 제조업의 주요 투자자들입니다.

노예들의 손으로 수확된 목화가 당신 브랜드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기업들은 상위 목화 유통 회사들이 우즈베키스탄 정부나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우즈벡 투자기업들로부터 면화를 직접 공급받지 않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큰 목화 제조업체 중 하나로서 대우 섬유 페르가나(Fergana), 부하라 (Bukhara), Global Komsco DAEWOO 등 3개의 면방업체 등을 통해 목화, 목화실, 직조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계열사들과의 거래는 우즈베키스탄 섬유업에 존재하는 강제 노동을 권장하는 행위입니다. 대우 인터내셔널과 그 관련 업체들로부터 모든 거래를 끊는 것이야말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게 국제 시장 참여 여부가 강제노동 종식에 달려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이나 우즈베키스탄 목화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cottoncampaigncoordinator@gmail.com 으로 Cotton Campaign에게 연락 주세요.

4 투명성 (transparency) 향상에 노력해 주세요 - 목화 유통업자들과의 계약서에 목화 원산지 표기 요구 조항을 도입, 믿을만한 정보제공을 거절하는 유통업자와는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투명성을 향상 시켜 주세요. 목화의 정확한 원산지 정보는 선하 증권, 구입 주문서, 포장과 물품 목록, 입고제품 기록, 편물 제품 기록, 그리고 목화 원료 증명서 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면화 원산지 투명성 일반화는 회사들에게 인권 존중을 다하는 기회를 줍니다. 예전부터 유통망

관리 시스템에 원산지를 표기했다라면, 우즈벡 목화 불매운동은 엄청난 경제적인 압력을 우즈벡 정부에게 주었을 것이고, 아마도 강제노동은 더 일찍이 종식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몇 백만 명의 우즈벡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목화밭에서 강제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됐을지 모릅니다. 유통망이 더 투명해질 때까지, 기업들의 행동 수칙은 빈 껍질에 불과합니다. 유통망의 투명한 면화 원산지 기제는 세계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목화 노예 공모를 피하기 위한 기본적인 상당주의 의무(due diligence)인 것입니다.

5 목화 거래자들과 대화해 주세요 - 목화 거래자들이 각자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우즈벡 목화 산업 강제 노동이 끝날 수 있게 장려 해주세요. 우즈벡 목화 거래자들은 현재 카길 면화 (Cargill Cotton UK), 아이씨티 (ICT Cotton UK), 에콤(Ecom), 폴 라인하르트 (Paul Reinhart AG), 씨클 (Sicle), Cogecot Cotton Company, 이케아 (IKEA Trading), 루이 드레퓌스 (Louis Dreyfus Commodities) 그리고 코파코 (Copaco) 등을 포함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중앙당국이 모든 목화 산업과 관련된 영역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 면화 무역 회사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소매 사업자 그리고 브랜드 회사들은 이런 목화 유통 회사들을 통해 면화의 매매를 추진하기에, 브랜드 회사들은 자기의 위치를 이용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강제 노동을 멈출 때까지 유통 거래 회사들이 우즈벡 목화 매입을 중지 하도록 강력히 요구 해야 합니다.

Cotton Campaign 서약을 시행함으로써 기업들은 각 유통망 전체에 걸쳐 인권 존중을 확고히 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에게는 특히 정도가 지나친 목화산업 강제 아동과 어른 노동을 중단하라고 압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약 서명을 함으로써 각 회사들은 활발한 열의를 보이고 인정을 받음으로써 회사 브랜드를 지키고 그 가치를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에 열거한 5단계를 이행함으로써 회사들에게 더 실재적인 인권 위험 대처를 기대하고 또 잘 이행하면 점진적인 보상을 주지만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부여 하는 현명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Cotton Campaign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강제아동노동 문제를 염려하던 기업들이 현재까지 취한 조치들, 예를 들면 공식적 입장 발표, 유통업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서신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우 인터내셔널과 같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회사제품의 불매 운동, 유통상의 증가된 투명성 그리고 섬유 산업내 다른 업체들의 참여도 증진 등을 포함하여 서약 추진과 계속된 운동 전개에 있어 기업들과 함께 일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이외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www.cottoncampaign.org으로 연락주세요.

별첨:

서약 동의서

우즈베키스탄 목화밭 아동 강제 노동 반대 업체 서약

저희, 기업 서명자들은 아동 강제 노동력으로 우리 상품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저희는 우즈베키스탄 목화 생산과정에 체계적인 아동 강제 노동력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연합체와 합동하여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즈베키스탄 강제노동 종언을 위해 함께 일해 나갈 것입니다.

이 서약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우즈베크 목화 재배에 아동 강제 노동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목화 산업에서 강제로 아동 노동력을 투입 하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즈베크 목화를 고의로 제품 생산과정에 공급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 서약을 서명함으로써, 기업 서명자는 (이하 ‘갑’이라 한다) 서약 가입기업 명단에 들어갈 알맞은 회사명 철자를 아래 빈 칸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 브랜드 (명단에 기재하고 싶은 자사 브랜드 이름을 모두 다음 빈칸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 로고를 (jpg/png/pdf 포맷) 첨부했다면 체크해 주세요.

다음 아래 내용에 동의합니다:

상기 서약서 내용은 (해당사항과 필요여부에 따라) 회사 고위 경영진, 고객 상담원 그 외 관계 부처에 의하여 검토 승인되었습니다.

‘갑’은 Responsible Sourcing Network에게 (RSN - 비영리 단체 As You Sow의 프로젝트 이름) 회사/ 브랜드 이름과 로고의 사용을 www.sourcingnetwork.org 온라인 웹사이트와 “우즈베키스탄 목화밭 아동 강제 노동 반대” 관련 교육 자료에 한해 허락합니다. 로고의 추가적인 사용은 ‘갑’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 서약 내용에 동의 한다면, 아래에 서명하세요.

위와 같이 Cotton Campaign 선언문에 동의함.

성명: _____ 인

직함: _____

모두 기재 하신 후 Responsible Sourcing Network Cotton, 프로그램 매니저 Valentina Gunery
에게 서약서를 보내주십시오.

전화번호: +1(415)692.0725, 이메일: valentine@sourcingnetwork.org

조폐공사의 우즈베크 진출(GKD)의 문제점과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문제

박원석 의원
진보정의당

조폐공사의 우즈베크 진출(GKD)의 문제점과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문제



국회의원 박원석(기획재정위원회)

I 조폐공사의 우즈베크 진출 과정

1. 경과

- 우즈베키스탄 면펄프 제조관련 자료조사(2 회) : '06. 10. ~ 11.
- 우즈베키스탄 현지 면펄프 제조 및 적용실험(2 회) : '07. 1 ~ '08. 2.
- 우즈베키스탄 MSE 와 면펄프 사업관련 MOU 체결 : '07. 8. 7.
- ※ MSE(Markazsanoateksport) : 대외경제부 산하 원자재수출담당공사

□ '09. 5 월, 해외사업 협력에 관한 MOU 체결

- 한국컨소시엄 구성(한국조폐공사, 이하 “공사”-대우인터내셔널, 이하 “대우”)

- '09. 7 월, 코코지(KOGOZI)社 투자에 관한 LOI(투자의향서) 통보
 - 수신기관 : 우즈벡 정부 관련부처 및 주채권은행(우즈벡 대외경제은행; NBU)
 - '09. 11 월, 한국컨소시엄 현지 기술실사 실시
 - '10. 2 월, 한국컨소시엄-주채권은행(NBU) 간 MOU 체결
 - 주요내용 : MOU 체결 후 2 개월 내 인수 계약 체결
 - 사업타당성 분석 자문용역 실시(한영회계법인)
 - '10. 3~4 월, 인수제안서 제출 및 협상(정부 관련부처 및 NBU)
 - '10. 6 월, 공사-대우 간 합작법인 설립 합의서 체결
 - 합작법인 인수.설립위원회 구성
 - 한국컨소시엄-주채권은행(NBU) 간 예비자산인수계약 체결
 - '10. 7 월, 한국컨소시엄-대외경제성 간 투자협정서 체결
 - '10. 8 월, 본 사업에 관한 우즈벡 대통령령(특혜보장) 공포
 - 우즈벡 코코지社* 양기울 공장** 인수(자산인수 방식)
- * 우즈벡 정부가 25% 지분을 소유, '09. 7. 31 일부로 청산 확정(우즈벡 경제법원 판결)
 ** 코코지사가 소유한 제지 공장(타슈켄트) 및 면펄프 공장(양기울) 중 양기울 공장을 분리 인수

2. GKD 설립 이후 면펄프 생산현황.

- 기재부가 2012 년 대대적으로 홍보를 진행했던 당초 생산량에 현저히 부족.

(1) 연도별 생산실적 - 2012 년 국정감사 박원석 의원실 제출 자료

구 분	'11 하반기(9 월~12 월)	'12 상반기
제품	580 톤	1,383 톤
반제품(시험품)	1,118 톤	214 톤
계	1,698 톤	1,597 톤

※ 생산설적 미진 사유

- 생산시설 보완 지연 및 정선시설 추가설치로 생산설적 미진
- 수요처별 P.Q. 획득 및 운영 안정화 기간 소요

(2) 2011년 7월 12일 기재부 보도자료 ‘공공기관의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과 거둬’ 中

〈사업추진 성과 및 파급효과 예상〉

	'11년	'12년	'16년
▪수량(톤)	4,500	12,500	18,200
▪매출액(천불)	16,875	46,875	68,250

- 면펄프 생산이 본격화되는 '11년 이후, 매출액의 지속적 증대 예상
- 제지공장 일부공정(펄프화 부문)생략으로 조폐공사의 원가경쟁력 제고 및 노후 시설 대체투자비 250억원 절감효과 발생

Ⅱ 조폐공사의 우즈베크 현지 법인 GKD 의 문제점

1. 기획재정부의 전폭적 지원사업

- 조폐공사 이사회 회의록(2010년 3월 24일), 해외사업리스크 관리 위원회 회의록(2010년 3월 17일)에는 이사진이나 위원들이 우즈베크 진출에 대한 많은 우려를 표명. 우려의 주 내용은 장기 독재 정권이라는 점에서 정권의 약속을 믿고 투자할 만한 것인지, 환전 등의 현지 어려움 등에 관한 문제.
- 이에 대해 당시 노원상 부사장은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임을 강조. 더불어 현지에서의 어려움은 대우의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할 것이며, 대통령령으로 충분한 면화량을 확보하겠다는 등 대우에 대한 신뢰와 우즈베크 정권에 대한 믿음 강조
- 조폐공사는 06년부터 우즈베크 면펠프 제조관련 자료 조사를 실시. 09년 5월 해외사업의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면서 현지의 아동(강제)노동에 관한 정보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 해외투자를 진행하는 과정과 그 파트너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대 파트너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검토도 없이 진행. 또한 현지 관련 사업에 대한 충분한 윤리적/도덕적 검토조차 진행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역시 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약속하면서도 현지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
- 2010년 3월 17일 '해외사업리스크 관리 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기재위와의 사업에 대한 협의를 물었을 때, 장관의 구두 약속을 받았다고 답변.
- 기획재정부는 2012년 10월 10일 '공공기관 글로벌 역량 강화방안'이라는 보도자료에서 공공기관의 자원 외교 등 활발한 해외 진출은 통해 해외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홍보.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원외교'의 성과임을 강조하며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성과를 광고.

□ 간사

그렇습니다. 지난 2 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시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참석하셔서 MOU 를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에 변경되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략)

□ 위원 : 노원상(부사장)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4 년간 지속적으로 현지조사 등을 해왔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도 현지 투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했으며, 사업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 경제성 문제

(1) GKD 에 대한 총 투자비용

〈 우즈베키스탄 면 펄프 공장 투자현황 〉

구 분	금 액
GKD 설립자본금	1,100 만 불(공사 715 만 불, 대우 385 만 불)
양기울 공장 인수대금	1,920 만 불(10 년 분할, 현재 384 만 불 지급)
보완투자	1,562.5 만 불(건축+설비, 10 월 현재)
합 계	총 4582.5 만 불(508 억 8,311 만원) <u>*현재까지 3046.5 만 불 투자(338 억 3,138 만원)</u>
차 입	1,700 만 불

- 2010 년 3 월 17 일 조폐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공사의 제지시절이 83 년도에 설치되어 30 년이 지났’기 때문에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225 억이 필요한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경제성 측면에서 해외투자가 좋고, 공해문제로 인해 사양화 되는 제지사업 일부를 외국에서 하는게 좋다고 설득. 조폐공사의 생산 설비는 30 년 되었으나 우즈벡의 양기울 공장은 85 년도에 만들어진 27 년된 설비.

3. 비윤리적 해외 투자

(1) 조폐공사 스스로 사문화 시킨 윤리 강령

- 조폐공사는 윤리경영을 기업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고 밝힘.

<조폐 공사 홈페이지 열린경영 中 발췌>

○ 윤리경영의 필요성

한국조폐공사의 기업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활동의 기준을 "조폐윤리헌장"에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기본 경영정신입니다

< 조폐공사 윤리강령 본문 제 6 장 >

본문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 28 조 (국제경영규범 준수)

① 국제연합 글로벌 컴팩트 (UN Global Compact) 가입기관으로서 선진 윤리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 글로벌 컴팩트(UN Global Compact) : CSR 과 관련한 국제 동향 중 하나로 지난 2000 년 코피아난 前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협약. 글로벌 컴팩트는 규제 수단이나 행동강령이 아닌 일종의 ‘가치기준’으로 노동, 인권, 환경, 반부패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10 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조폐공사는 2007 년에 가입.

<글로벌 컴팩트 10 대 원칙 중 노동기준>

○ 글로벌 컴팩트 10 대 원칙 中 노동기준

3. 기업은 실질적은 결사의 자유 및 집단 교섭권을 인정한다.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5.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철폐한다.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2) 대우인터내셔널은 윤리경영의 최선의 파트너였다.

- 우즈벡 아동노동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숨겼던 대우

- 대우는 이미 2006년부터 우즈벡에 2개의 면방공장(실 생산 공장, 페르나가 면방법인, 부하라 면방법인)을 운영. 우즈벡에서 아동 노동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2008년.

- 대우가 조폐공사에 사업제안을 한 것은 2009년. 대우는 아동노동/강제노동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알고 있었음. (대우측 답변에 의하면 08~10년 사이에 대우의 제품이 유럽바이어들에게 외면당했으나, 2010년부터는 거래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 대우에 대한 과도한 신뢰 (2010년 3월 24일 이사회 회의록)

: 대우가 최종 협력사로 선정되었다기 보다 애당초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이 대우 밖에 없었음. (대우가 조폐공사의 동전 수출 영업을 대행해 준 인연, 우즈벡 현지 면방 공장을 운영해오고 있었던 점)

- 사업제안서의 표지/목차/부록 등을 제외한 총 21페이지의 제안서 중 12페이지(57%)가 국가 투자환경 및 노무관리 분석에 관한 내용. 이 중에 현지 아동노동으로 인한 문제를 비롯하여 이로 인해 유럽 등의 판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전혀 명기되어 있지 않음.

- 대우는 실제로 우즈벡의 아동강제 노동이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08년~10년 경에 아동강제노동으로 인해 유럽 판로가 어려워졌음. 이 때문에 우즈벡은 정부차원에서 2009년과 2012년에 아동노동 금지하는 법률을 공포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오고 있다고 주장. 대우와 우즈벡은 이로써 관련한 모든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강변.

- 대우의 사업 제안서에 의하면 투자 위험 요인 분석에서 '사기 조심', '관료들의 부패'를 경고하고 있기도 함. 또한 노무관리 부분에서는 '노조문제 전무'가 '장점'으로 표기되어 있기도 함.

2.1 우즈베키스탄 국가환경 분석(계속)

▪ 대우인터내셔널의 우즈베키스탄 사업경험에 의한 투자 환경 장점 요약

- * 저렴한 인건비(GROSS SALARY 기준) : 단순 노동직 \$80/인, 사무직 \$170/인
- * 저렴한 전력비(2007년 기준) : 한국대비 41%수준(한국 약84.6CYM/Kwh, 우즈베키스탄 34.55CYM/Kwh)
- * 투자 우대 제도 :
 -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며 사안에 따라 투자자에게 특혜 부여(최초 투자 I/A 제출시 신중히 검토)
 -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 7가지 세금 면제(2005년 7월 1일부터)
(법인세, 재산세, 기간산업세, Cleaning Tax, 환경세, 도로기금, 소규모 업체의 Single Tax)
- * 독점 지위 혜택 가능 :
 - 경제를 완전히 개방하지 않은 관계로 적합한 품목을 우즈벡에서 생산할 경우 독점지위를 누릴 수 있는 기회 존재
- * 무역의 요충지 : 중앙아시아에서도 중앙에 위치함에 따른 중앙아시아 국가 향 수출 기회 확보
- * 노조문제 전무 : 한국과 달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재까지 노조로 인하여 큰 문제가 발생한 예가 없음

Source: 대우인터내셔널 내부자료



2.1 우즈베키스탄 국가환경 분석(계속)

▪ 대우인터내셔널의 우즈베키스탄 사업경험에 의한 투자 환경 단점 요약

- * **환전 문제** : 현지화 환전이 어렵다는 것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하는 기업의 최대 공통 문제점.
(법적으로 현지화를 달러화로 환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으나 외환사정이 좋지 않아 신청 후 1~2개월 소요)
- * **강제매각** : 정부의 외화부족분을 보전을 위해 원가성 비용을 제외 외화 수입 분의 50%를 공식환율로 강제매각
- * **판매대금 은행 입금 의무** :
 - 판매대금 전액을 거래은행에 입금시키도록 규정
 - 가끔 은행에서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 현금 인출도 급여 및 출장비 이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함
- * **사기 조심** : 우즈베키스탄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쉽게 접근하다가 현지인들에게 속는 경우가 있음.
 - 과거 실크로드의 주역으로 상술이 매우 뛰어난 민족 / 접대 및 도움을 베풀 경우 더 큰 보상을 바라고 있음.
 - 이들을 순순히 믿고 업무를 진행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 많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철저하게 업무 추진 요
- * **말로 한 약속을 믿지 말아야 함** :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철저하게 문서로 남기고 공증을 받아 두어야 함.
 - 파트너가 계약서에 빨리 서명하라고 재촉할 경우에는 더욱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불리한 점을 수정한 후 서명
- * **관료들의 부패** :
 - 현지 관료들의 횡포와 비효율적인 업무추진, 법률 및 제도의 미 정비 등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업 활동에 큰 장애요인임.
 - "우즈베키스탄은 되는 것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라는 말처럼 현지 관료들과의 인맥 형성도 매우 중요한 사항임.
 - 정부측과 계약 시에는 예상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명문화하여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음.

Source: 우즈베키스탄 투자혁신가이드(2007)

32



(3) 이미 미얀마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던 대우

- 미얀마는 지난 1996 년 우리나라가 가입한 바세나르 협정에 의해 방산물자 수출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국가. 포탄 제조설비와 기술은 국제규범인 바세나르 조약 등에 의해 수출이 통제돼 있어 관계 부처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 또 미얀마는 우리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분류하고 있어 방산물자 수출이 불가능한 나라.
-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 군사정부로부터 1 억 3 천 380 만 달러(계약 당시 환율기준 약 1 천 600 억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2002 년부터 2006 년 10 월까지 무기 제조 장비와 기술 수출 활동을 해왔음.
- 대우인터내셔널은 방산업체인 P 사가 만든 포탄 신관 및 관련 기계설비 수백억원대를 미얀마에 불법 수출 .포탄 신관은 포탄 뇌관 등을 담는 특수 재료로 재래식 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 대우는 기간동안 전략물자 33 종 등 포탄 제조장비 480 종을 수출하고 미얀마 기술자에게 생산기술을 교육해옴. 또 미얀마 훈련생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관련 기술을 교육하기도 했고 미얀마 국방산업소 측에 탄체 도면을 제공하기도.
- 2006 년 12 월 6 일 미얀마에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 등을 불법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및 기술개발 촉진법 위반반 등)로 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 사장과 대우중기(현 두산인프라코어) 김모 부사장 등 7 개 업체 임원 13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외국에 머물고 있는 양재신 전 대우중기 사장 등 2 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 2007 년 11 월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우인터내셔널 전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우인터내셔널 전 대표

이모씨에 대해 벌금 5000 만원을, 대우인터내셔널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의 다른 전현직 임원 9 명에 대해 벌금 500 만~1000 만원씩을 선고.

- 2010 년 12 월 30 일 대법원은 전무 이모(59)씨에게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전·현직 임·직원 10 명에게 벌금 500 만원~2000 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확정. 1·2 심 재판부는 정부가 수출제한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2004 년 10 월 이후 혐의에 대해 전원 유죄를 선고.

- [참고] 대우는 2011 년 필리핀, 인도네시아과 방산협력을 통해 각종 무기 등의 수출도 모색. 국내 종합상사로는 유일하게 35 년 이상 방산수출 전문조직을 운영. 대우인터내셔널은 △K2 소총과 탄약(1980 년대) △K200 장갑차와 호위함(1990 년대) △KT-1 훈련기와 2009 급 잠수함창정비(성능개선사업), 장갑차(2000 년대) 등 각종 무기의 첫 수출을 담당.

- 불법 무기 수출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진행 중에도 공공기관과 함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활발히 진출.

〈 대우 인터내셔널의 해외진출 〉

사업명	자원명	설립	지분율	참여공공기관	사업 단계
아제르바이젠 이남광구	석유	2007.07	2%(6)	한국석유공사(8%)	철수
볼리비아 꼬로꼬로 동광산	구리	2008.06	5%(1)	한국광물공사(23%)	탐사
호주 마리 우라늄 광산	우라늄	2008.10	13%(1)	한국광물공사(25%)	탐사
호주 화이트 클리프 니켈 광산	니켈	2008.10	25%(2)	한국광물공사(25%)	탐사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 광산	유연탄	2009.08	5%(116)	한국광물공사(2.5%)	생산
미얀마 Offshore Pipeline	가스	2010.07	51%(140)	한국가스공사(8.5%)	개발
미얀마 Offshore Pipeline	가스	2010.07	25%(237)	한국가스공사(4.2%)	개발

(4) 버마 가스전 개발과정에서의 OECD 가이드 라인 위반

- 한국은 OECD 가맹국이자 관련 지침서의 서명국으로 한국은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행하는 활동들이 지침서에 부합되도록 권장할 책임이 있음.

- 버마 아라칸 주 앞바다의 A-1 천연가스 개발탐사에 대한 권한은 대우인터내셔널이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가 8.5%를 소유.

- EARTHRIGHT 가 2008 년 10 월에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가스전 탐사와 파이프 라인의 공사를 위해 주민들은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으며, 쉘 가스전 개발에 반대할 경우 납치

고문의 피해 증언. 파이프 라인 공사는 국립해양공원 및 환경적으로 중요한 망고 늪과 강 하구를 횡단하여 건설.

- 대우 측은 버마에 병원을 건설하는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병원의 건설과정에서 주민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음.

- OECD 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대한 지침이 존재. (*OECD Guideline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대우와 가스 공사는 쉘 가스 프로젝트에 결합함으로써 위의 가이드 라인의 위반

. 지속가능한 개발에 공헌하지 않고, 쉘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음 : OECD 지침 제Ⅱ장, 1 조와 2 조 (*OECD Guideline Ch. II, § 1 and 2*)를 위반.

. 자신들의 활동과 재정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 및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공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음. : OECD 지침 제Ⅲ장 1 조 및 제Ⅴ장 2 조 (*OECD Guideline Ch. III § 1 and Chp. V, § 2*)를 위반.

. 강제노동을 없애는데 공헌하지 않음. : OECD 지침 제Ⅳ장, 1 조(c) (*OECD Guideline Ch. IV, § 1(c)*)를 위반

. 이미 철저한 해저탐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지 않음. : OECD 지침 제Ⅴ장 3 조 (*OECD Guideline Ch. V, § 3*)를 위반

Ⅲ 국정감사와 향후 계획

1. 국정감사 당시 정부의 답변.

- 기획재정부 장관(박재완)은 ‘우즈벡 공장의 투자 손실과 어린이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와 어긋나는 행위”라며 “아동착취나 아동노동을 해선 안돼지만 사업계속 여부는 우즈베키스탄의 지정학적 가치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
- 조폐공사는 국정감사에서 이 사항을 지적할 때 까지만 해도 상황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대우인터내셔널 사장 역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음.
-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즈벡 현지 공장에 대한 비경제적 문제로 인한 질타와 함께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것을 요청.

2. 국정감사 이후 조폐공사 답변

- 박원석 의원(윤호중의원)이 제기한 아동강제 노동과 관련하여 조폐공사의 답변

■ 아동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

○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에 의견 전달

- 국정감사 이후 주한 대사 면담을 추진하고 있고, 아동노동 문제 해소를 위한 의견 전달 예정.

○ 현지 대사관을 통한 대응

- GKD 에서 아동노동 문제해소를 위해 주 우즈벡 한국 대사관과 협의하여 외교채널을 통한 개선 요구 전달 예정.

* GKD 가 사용하는 린터는 원면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이고, 부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산업의 존재여부는 우즈벡 당국에서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GKD 에 어느정도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내부감사가 진행 중

- 감사 보고서는 21 일경 공개될 예정

- 주요 감사 관점

: 생산시설 가동 및 제품 품질 안정화 방안

: 내부 통제 체계의 적정성 점검

: 투입자금 집행의 적정성

- 최근(12 월 5 일) 조폐공사에서 보내온 답변 : 내부 감사에 아동노동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주 우즈벡 한국 대사관에 조폐공사 사장이 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음.

[주 우즈벡 한국 대사관에서 조폐공사에 보낸 답변]

우즈벡의 아동노동 금지와 관련된 자구 노력, 국제언론 등의 평가를 조사하여 정리한 내용을 보냅니다.

○ 올해 우즈벡 정부가 내각결의(82 호, 2012.3.26)로 아동노동 착취 근절을 위한 시책을 발표하였고, 총리께서 2012 년 목화 수확시 초중등학생 동원을 엄격히 금지하는 명령을 전학교에 전달하는 등 알려진 바와는 달리 아동노동 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 2012. 9. 6 우즈벡 자혼 통신사 발표에 따르면 2011.9.16~29 간 유니세프의 아동노동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우즈벡은 아동 강제노동 금지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함.

○ 2012 년 우즈벡의 목화 수확시 기존과 달리 아동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유럽인권단체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등, 아동노동 금지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우즈벡내 아동노동 관련 법령 현황

○ 2012.3.26 내각, 2012~2013 년간 아동노동 최악의 형태 관련 금지·근절 협정과 강제 노동 협정 이행을 위한 추가 조치 플랜(내각결의 82 호)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기 협정 관련 우즈벡 법령 개선 및 정비
- 상기 협정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 및 감독 강화를 위한 실제적 방안
- 상기 협정 및 노동법 관련 내용을 지방에 홍보하며 또 우즈벡에서 시행되는 사항도 국제사회에 전파
- 아동노동 착취 근절을 위한 프로젝트 시행

□ 목화수확시 아동노동 폐지를 금지하는 총리령 발표(rosbalt.ru)

○ 2012.8.14, 미르지요예프 총리는 2012 년 목화 수확시 초중등학생 동원을 엄격히 금지하는 명령을 우즈벡내 교육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 학교에 전달하였음

- 검찰청이 해당 총리령 이행 여부를 감독하게 됨

□ 러시아 언론의 목화수확 시 아동 노동이 목격되지 않는다는 기사 보도(9.18.yandex.ru)

○ 2012 년 목화 수확은 기존과 달리 목화수확 시 아동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유럽인권단체 전문가들이 평가

- ‘우즈벡-독일 인권포럼’(UGF) 인권단체 소속의 우미다 니야조바는 ‘아동 노동을 근절하려는 우즈벡 정부의 노력이 아직까지는 이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흥미로운 변화’라고 평가

□ 아동노동관련 외교부 성명

○ 2012.9.6 외교부 산하 자혼 통신사 발표에 따르면 우즈베크는 UN 및 유니세프 아동펀드와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 특히 목화수확시 아동 노동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2011.9.16~29 간 유니세프의 15 명의 직원들로 이루어진 7 개의 팀이 우즈베크 안디잔, 부하라, 카쉬카다리아, 나보이, 나망간, 사마르칸트, 수르한다리아, 스리다리아, 페르가나, 호레즘, 카라칼팍을 시찰하였음

○ 모니터링 결과 우즈베크는 아동 강제 노동 금지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측으로 부터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함

3. 향후 계획

- 조폐공사 측은 ‘우즈베크에 대한 내정 간섭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외교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

- 조폐공사와 정부는 ‘외교’문제로 이 사안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나 정부 당국의 노력으로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강제노동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음.

- 이후 21 일 조폐공사의 자체 감사 보고서와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 등의 과정에 국회에서의 감시와 시정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

- 이번 일회성 국정감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외 공공기관의 비윤리적 해외 투자 등을 제재하는 입법 발의 및 유사 사례에 대한 감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해외의 많은 기업의 진출 사례는 현지의 이해당사자와의 대화 없이 진행하거나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국제 가이드 라인에 위배되는 활동이 빈번.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문제제기를 계속해 나갈 예정.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국회출입·사회부·정치부 기자
박원석 의원실 (담당 : 강은주 정책비서)
발 신 보도자료 문의 : 김진욱 정책비서 02-
784-7611)
날 짜 2012. 10. 14. (총 3 쪽)

[2012 국정감사]

조폐공사 우즈벡 투자, 비윤리·직무유기의 막장드라마

조폐공사-대우 27년 된 노후 공장인수, 국제 아동 노동 협약 위배
2012년 생산목표 12,500톤, 실제 생산은 1,597톤에 불과해
대우, 현지사정 숨기고 조폐공사는 제대로 확인도 안 해

1.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은 오늘(15일)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조폐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이 지난 2010년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한 현지 법인(GKD)이 면펄프 공장을 인수한 것은 국제협약과 자체 윤리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시설 노후화, 정치상황, 법·제도 등 투자 위험을 인식하고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아직까지 제대로 가동조차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투자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당장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조폐공사는 지난 2010년 말, 노후화된 국내 제지설비를 대체하고, 국내외 업체에 면 펄프를 공급하기 위해 면화가 풍부한 우즈베키스탄에 소재한 면펄프 공장을 대우인터내셔널과 공동투자 형식으로 Global Komsco Daewoo(GKD)라는 현지

법인을 설립해 인수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면화산업은 추수기간에 국가목화수확연례명령을 내려 해당 기간 동안 학교 교원들과 학생들 모두 목화를 추수하는 데에 동원하는 등의 강제·아동노동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우즈베크 정부는 자국 국민에게 생산할당량을 채울 것을 강요하고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주민들은 유치장에 갇히는 등의 처벌을 가해 지난 4 월에는 유치장에서 나온 48 세 농민이 자살을 한 사건도 벌어진 바 있다.

3. 조폐공사는 겉으로는 기업경영에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하고 국제협약을 준수하겠다고면서, ILO 협약 위반일 뿐 아니라 조폐공사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의 10 대 원칙 중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고 아동노동을 철폐 하겠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사업을 서슴지 않고 저지른 것이다. 이는 지난해 아디다스 그룹, 버버리, 리바이스 등 유명 의류업체 등이 ILO 가 우즈베키스탄의 아동·강제노동이 철폐되었음을 인정하기 전까지 우즈베키스탄 면화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한 것을 상기하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지난달 10 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또다시 ILO 의 목화농장 시찰을 거부했다.

4. 박원석 의원은 “조폐공사가 아동·강제 노동이 심각한 우즈베키스탄에 면펄프 공장을 설립하고 투자한 것은 무책임과 비 윤리의 극치”라며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우즈베크의 아동노동 문제가 이사회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찾아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이 스스로 도입한 조폐윤리강령과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태를 자행한 것은 비단 자신들 뿐 아니라 이를 승인한 한국 정부 모두를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5. 한편, 조폐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은 법인설립 자본금으로 1,100 만 불(조폐공사는 715 만 불, 79 억 원 가량)을 투자해 GKD 를 설립하였는데, 10 년 간 1,920 만

불(219 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수한 현지 공장이 27 년이 지난 노후 설비로 인해 1,562 만 불 가량(173 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투입 되고 있었다. 물론 이는 GKD 가 우즈벡 정부에게 2013 년까지 초기운전자금을 포함해 의무적으로 1,600 만 불의 시설투자를 하는 것을 의무로 한 바 있어 불가피한 자금 투입일 수 있다. 그러나 면펄프 생산량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597 톤 정도 인데, 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2012 년에 12,500 톤의 면펄프를 생산해 냈어야 한다. 즉,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고 생산실적은 현저히 미달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 우즈베키스탄 면 펄프 공장 투자현황 〉

구 분	금 액
GKD 설립자본금	1,100 만 불(공사 715 만 불, 대우 385 만 불)
양기올 공장 인수대금	1,920 만 불(10 년 분할, 현재 384 만 불 지급)
보완투자	1,562.5 만 불(건축+설비, 10 월 현재)
합 계	총 4582.5 만 불(508 억 8,311 만원) <u>*현재까지 3046.5 만 불 투자(338 억 3,138 만원)</u>
차 입	1,700 만 불

6. 대우 인터내셔널은 이미 현지에서 면화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최근 까지도 아동노동 문제로 유럽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조폐공사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대우인터내셔널은 제안서에서 우즈벡이 ‘노조문제가 전무’해서 투자환경이 좋다거나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되는 것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등의 내용을 서슴지 않고 기재했다.

7. 박원석 의원은 “현지 사정을 확인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조폐공사의 우즈베키스탄 면펄프 공장 인수는 경제적·윤리적 모든 관점에서 철저한 실패일 뿐 아니라 직무유기이고 이번 사업을 제안한 대우인터내셔널 또한 사업제안서를 통해 비윤리의 극치를 보여준다.”라며 “조폐공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당장 사업을 철수 시키고 대우인터내셔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

조폐공사의 우즈벡 투자 비윤리 직무유기의 막장드라마



국회의원

박원석

조폐공사의 윤리 강령

“공사의 기업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활동의 기준을 ‘조폐윤리현장’에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기본 경영정신”

본문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8조 (국제경영규범준수)

① 국제연합 글로벌 컴팩트(UN Global Compact) 가입기관으로서 선진윤리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 중 노동기준

3. 기업은 실질적 결사의 자유 및 집단 교섭권을 인정한다.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5.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철폐한다.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국회의원

박원석

우즈벡 목화농장의 강제아동노동



우즈베키스탄 취약 아동이 목화밭 강제노동에 동원된 현장을 찍은 사진 (Tim Newman, Campaigns Director, 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

14년간 독재정권을 이어가고 있는 우즈벡 정부는 매년 목화 수확 강제 할당량을 지정

수확기(9월~11월)에는 학교를 폐쇄하고 아동 노동 동원
2011년과 2012년에 할당량 강제로 목화재배 농민 자살
2012년 9월 10일 ILO(국제노동기구)의 현지 실사 거부

* 자료 제공 : 공익법인 '어필'



국회의원

박원석

우즈벡 목화농장의 강제아동노동

- ✓ 목화농장에 강제 동원되는 아이들은 연간 2백만명
- ✓ ILO 협약 '강제노동금지 협약'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 협약' 위반
- ✓ 2007년 BBC 방송 등을 통해 유럽에 알려지면서 우즈벡 면화의 유럽 수출의 어려움

12세에 수작업으로 면화를 수확하는 데에 동원된 소녀
(Uzbek German Forum for Human Rights : 12 Year Old in Cotton Field in Kashkadarya, 2011)



* 자료 제공 : 공익법인 '어필'



국회의원

박원석

비윤리적 기업 대우인터내셔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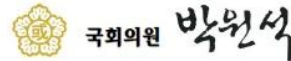
사업제안서의 표지/목차/부록 등을 제외한 총 21페이지의 제안서 중 12페이지가 국자 투자환경 및 노동관리 분석에 관한 내용. 현지 아동노동으로 인한 문제로 **對유럽 판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전혀 명기되어 있지 않음.**

미얀마에서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

- ✓ OECD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대한 지침이 존재. (*OECD Guideline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 대우와 가스 공사는 쉘 가스 프로젝트에 결합함으로써 가이드 라인 위반

불법 무기 수출로 대법원 유죄판결

- ✓ 미얀마 군사정부에 2002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무기 제조 장비와 기술 수출 활동
- ✓ 2010년 대법원 유죄 판결



대우인터내셔널의 사업제안서 1

2.1 우즈베키스탄 국가환경 분석(계속)

• 대우인터내셔널의 우즈베키스탄 사업경험에 의한 투자 환경 장점 요약

- * 저렴한 인건비(GROSS SALARY 기준): 단순 노동자 \$80/인, 사무직 \$170/인
- * 저렴한 전력비(2007년 기준): 한국대비 43%수준(한국 약84.6CYM/Kwh, 우즈베키스탄 34.55CYM/Kwh)
- * 투자 유제 제도:
 - 외국인 투자유지에 적극적이며 사전에 미리 투자자에게 혜택 부여(최소 투자 1/A 제정시 신용회 임피)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가차지 세율 면제(2009년 7월 1일부터)
 - (법인세, 재산세, 기업상징세, Cleaning Tax, 환경세, 도로기금, 소규모 업체의 Single Tax)
- * 특점 지원 혜택 가능:
 - 경제를 발전과 개발까지 많은 관세로 직할한 통관을 우즈베키에서 생산할 경우 특별지원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존재
- * 무역의 요충지: 중앙아시아에서도 중앙에 위치함때 따른 중앙아시아 국가 할 수출 기회 확보
- * 노동문제 전문: 한국과 달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재까지 노동으로 인하여 큰 문제가 발생한 예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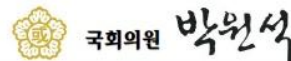
Source: DAEWOO INTERNATIONAL 31

2.1 우즈베키스탄 국가환경 분석(계속)

• 대우인터내셔널의 우즈베키스탄 사업경험에 의한

- * 환경 문제: 현지화 환경이 어렵다는 것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하는 7 (법적으로 현지화를 달리화로 환경 하는 때는 문제는 없으나 외환시장)
- * 강제매각: 정부의 외화부족분을 보전을 위해 원가성 비용을 제외 외화
- * 판매대금 은행 입금 의무:
 - 판매대금 전액을 거래은행에 입금시도록 규정
 - 가장 은행에서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 현금 인출도 금액 및 출장비 이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함
- * 사기 조심: 우즈베키스탄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쉽게 접근하다가 현지인들에게 속는 경우가 있음.
 - 과거 실크로드의 무역으로 상술이 매우 뛰어난 민족 / 협박 및 도둑을 배울 경우 더 큰 보상을 하려고 있음.
 - 이들을 순순히 믿고 업무를 진행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 관공으로 변호사를 통해 철저하게 업무 추진 요
- * 말로 한 약속을 믿지 말아야 함: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철저하게 문서로 남기고 공증을 받아 두어야 함.
 - 파트너가 계약서에 미리 서명하려고 재촉할 경우에는 더욱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불리한 점을 수정한 후 서명
- * 관료들의 부패:
 - 현지 관료들의 횡포와 비효율적인 업무수진, 법률 및 관공의 미 정비 등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업 활동에 큰 장애요인임.
 - "우즈베키스탄은 되는 것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 라는 말처럼 현지 관료들의 인연 활동도 매우 중요한 사항임.
 - 정부측과 계약 시에는 예상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명문화하여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음.

Source: 우즈베키스탄 투자환경(가이드)2007



우즈벡 투자는 최선이었나

‘공사의 제지시설이 83년도에 설치되어 30년이 지났습니다. (중략) 공사의 시설 현대화실에서 현재 개보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전검토결과 지료부분만 225억정도가 들어가며, (중략) 비교 검토한 결과 경제성 측면에서 해외투자가 좋고, 공해문제로 인해 사양화 되는 제지사업 일부를 제3국에서 가공·생산하고자 합니다.’

- 2010년 3월 17일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 간사

구분	금액(단위:달러)
GKD 설립 자금	1,100만 (공사 715만)
양기울 공장 인수대금	1,920만(10년분할, 현재 384만)
보완투자	1,562.5만(건축+설비)
합계	현재까지 3046.5만 (338억 3,138만 원)



국회의원

박원석